



전문건설인
대한민국을 세우다!



2025 Vol.46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뉴스레터

코스카레터

| KOSCA MESSAGE

| KOSCA NEWS

| KOSCA INFO

| KOSCA TODAY

| KOSCA TOGETHER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뉴스레터

코스카레터

2025 Vol.46

발행인 회장 김형겸
기고/투고 kosca21@kosca.or.kr
편집/발행처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디자인/제작 거북인쇄공사 (051. 808. 5571)
일러스트 거북인쇄공사



표지이야기

KOSCA 세움정원



KOSCA MESSAGE

05 권두사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 한영진 소장

KOSCA NEWS

- 06 협회소식
- 제회의 및 행사
 - 회원사 수주지원 및 업역 확대를 위한 간담회 활동
 - 회장동정
- 18 건설공사 수주지원 및 제도개선사업
- 19 특허 및 신기술 소개
- 2025년 3/4분기 신기술 현황



KOSCA INFO

- 20 **회원 스포트라이트**
 - 녹화조경(주) 대표이사 김점식
 - 〈KOSCA세움정원 감리T/F단장 특별 인터뷰〉
- 24 **건설산업정보(법령개정) PART1**
- 28 **건설산업정보(회원사안내) PART2**
- 37 **건설 관련 유권해석 및 판례**
- 40 **전문가칼럼**
 - 건설관련 법 상담
 - 세무관련 법 상담

KOSCA TODAY

- 42 **회원사 현황**
 - 부산전문건설업체 등록현황
 - 전입, 전출업체 회원사 명단
 - 회원사 변동사항(상호, 대표자변경)
 - 부산시회 신규회원 현황
- 45 **협회·조합 소식**
 - KOSCA 중앙회 업무단신
 - 전문건설공제조합 업무단신
 - 우리시회 2025. 4/4분기 주요일정
- 46 **건설현장 안전관리 노하우**
 - 고위험 작업별 사전안전성 검토
- 48 **2025년 건설업 교육**
 - 교육일정 안내

KOSCA TOGETHER

- 49 **부산의 명소**
 - 송정역 폐역 철길, 멈춘 선로 위의 시간
- 50 **세계의 아름다운 건축물**
 - 타지마할, 사랑이 남긴 대리석의 시
- 51 **소통하는 문화공간**
 - 힐링 무비
 - 힐링 북
- 53 **오늘의 트렌드**
 - 체험 마케팅, 디지털과 현실의 공존
- 54 **글로벌 이슈**
 - 관세 전쟁의 그림자 : 글로벌 경제를 뒤흔드는 보이지 않는 힘
- 55 **슬기로운 생활 꿀팁**
 - 잠이 보약! 슬기로운 수면 습관!
- 56 **하루 5분 건강**
 - 건강습관/ 건강음식
- 58 **독자와 함께**
 - 회원사 참여 마당(독자의견 및 퀴즈)

창립 40주년



**전문건설인
대한민국을
세우다!**



창립 40주년,

함께 쌓아올린 신뢰와 협력의
토대 위에서 전문건설
백년대계를 열어가겠습니다.

설/립/목/적

- 전문건설사업자의 품위유지와 상호협력의 강화 그리고 권익증진 및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전문 기술 향상을 위한 제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전문 건설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국민경제 발전에 공헌 하기 위함

주/요/업/무

- 전문건설사업자의 실적신고 접수 및 시공능력평가 등 정부 위탁업무
- 회원사 권익보호 및 제도개선 사업
- 회원사 건설공사 수주지원 및 업역확대 사업 등

주/요/연/혁

- 1985. 10. 15. 대한전문건설협회 설립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시지부 창립
- 1991. 04. 13.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직할시회(개칭)
- 1995. 01. 01.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개칭)
- 2014. 06. 12. 부산전문건설 소식지 『코스카레터』 창간
- 2024. 11. 01. 제13대 김형겸 회장 취임

부산의 녹색 미래, 함께 가꾸는 도시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광역시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 소장 한영진입니다.

우리 사업소는 시민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더 쾌적한 환경을 누리실 수 있도록, 도시에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을 중요한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화석연료 사용 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는 지금, 도시 전역의 녹지를 꾸준히 확충하고 정성껏 관리하는 일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과제입니다.

우리 사업소는 생활권 가까운 곳부터 대규모 녹화사업을 추진하며 도심 곳곳을 푸르게 가꾸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성된 녹지는 도로변의 온도를 낮추고 미세먼지를 줄이며, 시민의 쉼과 이동을 한층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등 생활 속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세심한 관리와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아 해운대수목원에 ‘KOSCA 세움정원’을 조성하고 부산시에 기부해 주셨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뜻과 정성이 모여 완성된 이 정원은 “전문건설인의 땀과 노력이 도시를 세우고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약 4,450㎡ 부지에 7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다양한 특수목을 식재하고 휴식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유일하게 세 가지 색의 꽃을 피우는 150년 수령의 배롱나무와 200년 된 소나무 등 희귀 수종들이 시민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움정원은 시민 누구나 편히 머물며 자연을 즐길 수 있는 녹색 쉼터이자 부산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부산광역시를 대표하여 자연과 시민을 위한 뜻깊은 나눔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의 녹지는 많은 분들의 손과 마음이 모일 때 더욱 풍성해집니다. 전문건설인 여러분의 경험과 기술은 부산의 도시환경을 안전하고 아름답게 유지하는 든든한 기반입니다. 이번 세움정원처럼 민과 관이 함께한 협력의 성과가 계속 이어진다면, 부산의 생활환경은 더욱 푸르고 편안해질 것입니다. 우리 사업소도 기본과 원칙을 지키며,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운영으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부산의 녹색 미래는 하루하루의 손길이 빚어내는 작은 변화가 모여 이루어집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기준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겠습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의 발전과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리며, 현장에서 애써 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영진

부산광역시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 소장

제회의 및 행사

01

2025년 부산전문건설인 조찬 경영포럼

부산사회(회장 김형겸)는 7월 14일(07:00 /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 최인호 전 국회의원, 전원석 시의원을 비롯한 내빈을 포함해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회 창립 40주년을 기념한 「2025년 부산전문건설인 조찬 경영포럼」을 개최했다.

최인호 전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부산의 미래발전’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으며 참석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은 영남권 최대 국책사업이며, 지역 건설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다.

한편 강연이 끝난 후 부산사회에서는 감사의 뜻으로 최인호 전 의원에게 ‘피규어 감사패’를 전달했다.



02

2024년 실적 우수회원 대표자 간담회

부산사회(회장 김형겸)는 7월 16일(12:00 / 롯데호텔 43층 도림) 2024년도 부산지역 전문건설공사 실적 우수업체 대표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실적 우수회원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2024년도 부산지역 전문건설공사 실적 우수업체 대표자 15명이 참석해 2024년도 실적 및 경영상태평가 현황을 보고하고, 지역 전문건설업계의 발전방안 등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김형겸 회장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부산전문건설업계의 발전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03

협회 창립40주년 기념 부산사랑 이기대 갈맷길 걷기대회

부산시회(회장 김형겸)는 7월 18일 회원사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회 창립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부산사랑 이기대 갈맷길 걷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우리시회 김형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1985년 창립 이래, 우리 협회는 전문건설업계의 권익보호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으며, 회원사의 땀과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의 성장이 가능했다. 오늘 걷기대회를 통해 앞으로의 100년을 향한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번 걷기대회에서는 오륙도 스카이워크에서부터 이기대 해안산책로를 따라 농바위, 동생말 전망대까지 약 4.5키로를 걷는 코스로 회원사들은 서로를 격려하고 우의를 다지며, 협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04

2025회계연도 제3차 운영위원회의

부산시회(회장 김형겸)는 7월 23일(10:00 / 월강초밥 3층 회의실) 운영 위원 20명, 회원감사 2명 참석한 가운데 「2025회계연도 제3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업종별 등록현황, 주요사업 추진계획 및 일정 등에 대해 보고하고, 제13대 운영위원 보선과 창립 40주년 기념 부산전문 건설인 테마공원 조성공사 감리T/F 운영 등 협회운영에 관한 주요 부의 안건을 심의했다.



05

2025회계연도 제1차 임원연석회의

부산시회(회장 김형겸)는 7월 23일(11:00 / 월강초밥 4층 회의실) 임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회계연도 제1차 임원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업종별 등록현황,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주요사업 추진계획 및 일정 등에 대해 보고하고, 제13대 자문위원들에 대한 위촉장을 전달했다.



06

2025회계연도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분과회의

부산시회(회장 김형겸)는 8월 14일 심수율 부회장, 최형선 분과위원장,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회원사 대표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회계연도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분과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분과회의에서는 2024년도 전문건설업 건설공사 기성실적 현황 등 주요 업무와 새 정부 대선공약, 협회 정책과제 반영 현황 등을 보고하고, 건설안전특별법 등 안전 규제 강화 기조에 따른 대응 및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07

2025회계연도 제3차 회장단 회의

부산시회(회장 김형겸)는 8월 18일(11:00 / 부산전문건설회관 4층 회장실) 회장단 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회계연도 제3차 회장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장단 회의에서는 업종별 등록현황, 협회 정책과제, 직원 성과연봉제 도입, 주요 행사일정 등에 대해 보고하고, 부산전문건설인 테마공원(KOSCA 세움정원)의 공사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설계변경 사전 검토 및 KOSCA세움정원 안내판 등 홍보문구에 대해 협의했다.



08

2025회계연도 제4차 기획혁신위원회의

부산시회는 8월 19일(11:00 / 부산전문건설회관 4층 회의실) 기획혁신위원 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회계연도 제4차 기획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획혁신위원회의에서는 부산전문건설인 테마공원(KOSCA 세움정원) 조성사업의 추진 경과를 보고하고, 공원 내 설치될 안내판과 앉음벽, 디딤석 등에 활용할 홍보문구에 대해 자문 및 홍보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09

2025회계연도 제2차 대외정책위원회의

부산시회는 8월 19일(14:00 / 부산전문건설회관 4층 회의실) 대외정책위원회 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회계연도 제2차 대외정책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대외정책위원회에서는 부산전문건설인 테마공원(KOSCA 세움정원) 조성사업의 추진 경과를 보고하고, 창립 40주년 기념 「제1회 전문건설의 날」 유공자 포상 후보자 추천 및 자문했다.



10

2025회계연도 제4차 운영위원회의

부산시회(회장 김형겸)는 8월 21일(11:00 / 부산전문건설회관 4층 회의실) 운영위원 21명, 회원감사 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회계연도 제4차 운영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업종별 등록현황, 주요 행사일정, 건설안전특별법 대응 등에 대해 보고하고, 「전문건설의 날」 유공자 포상 후보자 추천의 건 등 협회 운영에 관한 주요 부의안건을 심의 및 창립 40주년 기념 KOSCA 세움정원 준공식 홍보 활동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11

2025회계연도 제4차 회장단 회의

부산시회(회장 김형겸)는 9월 5일(11:00 / 부산전문건설회관 4층 회장실) 회장단 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회계연도 제4차 회장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장단회의에서는 업종별 등록현황, 중앙회 주요회의 및 행사, KOSCA 세움정원 추진경과에 대해 보고하고, KOSCA 세움정원 상징 특수목 식재 등 추가공사와 관련하여 협의했다.



12

2025회계연도 제5차 운영위원회의

부산시회(회장 김형겸)는 9월 5일(11:00 / 부산전문건설회관 4층 회의실) 운영위원 18명, 회원감사 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회계연도 제5차 운영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운영위원회의에서는 업종별 등록현황, 주요 행사일정, KOSCA 세움정원 추진 경과에 대해 보고하고, KOSCA 세움정원 상징 특수목 식재 등 추가공사 건에 대해 부산시 협조 요청사항과 감리 T/F 의견을 수용하여 추가 공사하기로 의결했다.



13

협회 창립 40주년 기념 KBS 열린음악회

부산시회 김형겸 회장 및 제13대 임원 33명은 9월 9일(19:30 / 여의도 KBS홀) 중앙회 주관 「협회 창립 40주년 기념 KBS 열린음악회」에 참석(전국 1,000여명 참석)했다.

이날 열린음악회 행사는 협회 창립 40주년을 맞아 전문건설산업의 소중한 가치를 국민과 함께 나누고, 업계의 역할과 성과를 알리고자 기념 문화행사로 인순이, 소찬휘, 노라조, 임백천, 모모랜드 등의 출연진으로 구성됐다.



14

2025년 제2차 협회 출입기자 오찬 간담회

부산시회(회장 김형겸)는 9월 15일(12:00 / 월강초밥 2층 회의실) 지역언론사 부산일보 담당기자 외 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2차 협회 출입기자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찬 간담회에서는 지역사회에 협회의 역할과 가치를 널리 알리고, 부산 건설산업의 위상을 강화하는 한편, 협회 창립 40주년 기념 KOSCA 세움지원 조성과 준공식에 관한 사항과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오찬 간담회를 진행했다.



15

2025회계연도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분과회의

부산시회(회장 김형겸)는 9월 17일 심수율 부회장(분과위원장),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회원사 대표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회계연도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분과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분과회의에서는 2024년도 전문건설업 건설공사 기성실적 현황 등 주요 업무와 새 정부 대선공약, 협회 정책과제 반영 현황 등을 보고하고, 건설안전특별법 등 안전 규제 강화 기조에 따른 대응 및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16

협회 창립 40주년 기념 「KOSCA 세움정원」 준공식

부산사회(회장 김형겸)는 9월 22일 해운대수목원 내 조성된 'KOSCA 세움정원'에서 협회 창립 40주년을 기념하는 「KOSCA 세움정원 준공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중앙회 윤학수 회장과 부산광역시 박형준 시장을 대신하여 임경모 도시혁신균형실장님을 비롯한 부산시 관계자와 회원사 임·직원 및 가족 등 약 250여명이 참석하여 협회 창립 4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며 전문건설인들과 지역사회가 함께 새롭게 도약하는 의지를 다졌다.

협회 창립 40주년을 기념하여 '전문건설인들의 땀과 노력이 도시를 세우고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된다.'는 뜻으로 조성된 'KOSCA 세움정원'은 해운대수목원 내 4,450㎡ 부지에 총 사업비 7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만들어졌다.

국내 유일의 삼색꽃을 피우는 150년된 배롱나무와, 약 200년된 희귀한 소나무 등 특수목과 함께 안개분수, 산책로, 휴식공간, 포토존 등으로 구성된 'KOSCA 세움정원'은 준공식 후 부산시에 기부되어 시민들에게 완전히 개방되며, 부산시와 협력해 지속적인 운영·유지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기념영상 상영과 함께 정원 조성 과정에서 헌신한 감리T/F 김점식 단장을 비롯한 8명에게 감사패가 수여됐으며, 협회 중앙회 윤학수 회장, 부산시 임경모 실장, 협회 부산시회 김형겸 회장이 함께하는 기념식수 행사도 진행되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윤학수 중앙회 회장은 축사에서 "부산시회가 40년간 지역 건설산업 발전을 이끌어온 성과를 인정하며, 이번 세움정원 조성이 전국 시도회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박형준 부산시장 역시 대신 참석한 임경모 실장을 통해 "지역 전문건설업계의 사회적 기여 정신에 깊이 감사하며, 앞으로도 지역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형겸 부산시회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협회 창립 40주년을 맞아 부산 전문건설업계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상징적 공간을 조성하게 되어 뜻깊다"며 "이 정원이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휴식공간이 되고, 전문건설인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한편, 1985년 설립되어 올해 40주년을 맞이한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는 현재 2,100여개 회원사가 가입된 부산지역 최대 단일 업종 사업자 단체이다. 부산시회는 산불, 수해 피해 지역에 대한 긴급 지원사업, 연탄 배달 봉사활동과 저소득층 학생 급식비 지원 등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올해는 황령산 벚꽃길 조성 30주년을 맞아 안전문화 실천 걷기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회원사 수주지원 및 업역 확대를 위한 간담회 활동

01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건설대기업 영남지사장 간담회

부산시회(회장 김형겸)는 7월 9일(12:00 / 서면 월강일식) 중앙 1군 건설대기업 영남지사장 9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대기업 영남지사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형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건설경기로 인해 종합과 전문 모두 힘든 상황에서 부산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공 중인 건설현장에 부산 전문건설사업자의 하도급 참여가 70% 이상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GS건설 이영구 전문위원(건설 대기업 영남지회장)도 “부산 전문건설사업자의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해 협회와 더욱 협업하여 상생방안을 마련토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02

2025년 상반기 건설 분야 전문가 법률상담 등 무료자문 실시

부산시회(회장 김형겸)는 7월 9일(14:00 / 부산 전문건설회관 4층 회의실) 회원사의 고충 해결과 당면한 애로사항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돕고자 「2025년 상반기 건설 분야 전문가 법률상담 등 무료자문」을 개최하였으며, 회원사 임·직원 13명이 참여해 법률, 노무, 세무회계, 신기술·특허 분야에 대해 도움을 받았다.

이날 상담에서는 부산시회 이윤근 자문변호사가 발주자 및 원도급사와의 분쟁에 대한 법적 대처방안 등에 대해 상담했으며, 주형록, 여찬모 자문노무사로부터 임금명세서 작성방법 및 교부,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관리, 4대 사회보험 및 퇴직금 분쟁 등 노무 분야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상담이 이루어졌다.

부산시회는 그 외에도 문상용 공인회계사와 김성현 변리사가 협회 경영자문단으로 활동하며 관련 분야에서 회원사의 자문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부산시회는 올해 「회원고충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상시 운영하면서 적극적으로 회원사의 법률과 노무 등의 법률 관련 고충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03

부산시 합동 「(긴급)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현장방문 점검」 실시

부산시회(회장 김형겸)는 8월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 부산광역시 건설행정과와 합동으로 부산시 「지방 광역 상수도(취수시설) 건설 취수관로 부설공사», 영도구 「부산 남항 돌제부두 물양장 확충」 공사현장 등 지역 내 3개 대형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불법 하도급과 하도급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했다.

최근 건설현장에서의 잦은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지시사항 중 “건설업 하도급 관련 불법 사항 강력 단속”의 일환으로 긴급하게 실시된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과 하도급 대금 미지급,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여부, 부당특약 설정 및 임금체불 점검,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등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에 대한 점검은 물론 ‘건축안전전문단’이 동행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점검도 함께 진행됐다.



04

「부산전문건설-건설대기업 상생데이」

부산시회(회장 김형겸)는 9월 11일(14:00 / 웨스틴조선부산 2층 오키드룸 연회의장)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와 공동으로 부산광역시 임경모 도시혁신균형실장 등 관계관, 중앙 1군 건설대기업 19개사, Scale-Up 참여 부산 전문건설사업자 27개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부산 전문건설업체-건설대기업 상생데이」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부산시회 김형겸 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총 20개의 상담 부스가 운영되었으며, 건설대기업 19개사 36여 명의 임원과 부산건설업체 27개사 40명의 관계자가 ‘1:1 상담’을 통해 건설대기업과 지역건설업체 간의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상담 세션 후에는 만찬을 통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네트워킹도 가졌다.

이날 김형겸 회장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보다 많은 부산 전문건설사업자들이 중앙 1군 건설대기업의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부산지역에서 시행되는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등 대형건설공사의 하도급 공사에 70%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부산 전문건설사업자와 중앙 1군 건설대기업이 상생 협력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05

2025년 추석 명절 대비 건설현장 하도급 실태점검 실시

부산시회(회장 김형겸)는 9월 19일, 23일, 24일 3일간 부산광역시 하도급 관리팀과 합동으로 「대변~죽성교차로 간 도로개설공사(7차)」, 「해운대제일교회 신축공사」 등 지역 대형건설현장 3곳을 방문하여 추석 명절 대비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을 맞아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 실태와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준수, 부당특약 여부,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 확인 등 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 근절과 건설업 무등록자에 대한 불법 하도급 등 건설부조리에 대한 점검이 함께 진행됐다.



한편, 부산시회는 각 현장에 보다 많은 부산 전문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당부하고, 공종별 우수전문건설업체 추천이 필요한 경우 협회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안내했으며, 이에 종합건설사들은 “시회와 부산시가 부산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만큼 우수한 부산 전문건설업체를 발굴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06

「2025 한국-에티오피아 비즈니스 포럼」

부산시회(회장 김형겸)는 창립 40주년을 기념하여 지난 9월 25일 (14:00 / 농심호텔 다이아몬드홀) 「2025 한국-에티오피아 비즈니스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우리 시회 김형겸 회장을 비롯해 회원사 등 27명이 참석했으며, 에티오피아 측에서는 데씨 달키 두카모 주한대사, 케펠레그네 공사, 아살레우 2등 서기관, 에티오피아 투자 네트워크센터 아샤나피 케네피 데사 대표, 아라강 시사이 아엘레 프로젝트 매니저, 가다 경제 특구 레마 모시사 닥사 부대표, 투자위원회 랄리세 개타 고문(화상회의 참석), 에티오피아 한인경제인연합회 류환명 회장 등 15명이 참여했다. 또한, 이노비즈 부산울산지회 임원, (사)통일호국유공자회 신행웅 부산 지부장 등 30여 명이 함께해 총 72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행사는 개회사와 환영사를 시작으로 △한국-에티오피아 협력 현황 및 진출 전략 발표 △에티오피아 건설시장 정책과 투자환경 설명 △회원사와 에티오피아 기업 간 비즈니스 상담 등으로 이어졌다.

부산시회는 이번 포럼을 통해 양국 간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회원사들의 해외시장 진출 기회를 넓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협력과 상생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장동정

01

부산시장 초청 지역건설업계 간담회

부산사회(회장 김형겸)는 7월 14일(17:00 / 해운대 웨스틴 조선) 부산상공회의소가 주최한 「박형준 부산시장 초청 지역 건설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부산 전문건설업계의 수주지원 확대와 지역 건설산업의 발전 방안에 대해 건의했다.

간담회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과 김형겸 회장 등 지역 건설단체장들이 참석해 부산 건설업계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김형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침체해 있는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건설현장의 최일선에서 실시공을 통해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고 있는 전문건설업계가 살아나야 지역경제도 살아 날 수 있다” 말했다. 아울러 부산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02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이사장 간담회

부산사회(회장 김형겸)는 8월 25일(15:00 /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이사장실) 이윤상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이사장과 박성출 건설본부장을 만나 간담회를 개최했다.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공단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김형겸 회장과 이윤상 이사장 등 참석자들은 가덕도신공항 건설공사와 관련해 지역 건설산업과 전문건설업계 발전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김형겸 회장은 “부산에서 이뤄지는 영남권 최대 국책사업인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에 지역 전문건설업계가 반드시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건의했다.



건설공사 수주지원 및 제도개선사업

제도개선

01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반대 의견 제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중복 규제' 및 '과도한 처벌' 논란

우리 협회는 현재 추진 중인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부산시회는 건설현장의 안전 강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본 제정안은 과도한 처벌, 중복 규제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우리시회는 7월 7일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중앙회 경유)했다.

본 제정안은 사업주와 법인에 대한 처벌을 과도하게 강화해 실제 안전사고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다수 법령이 있는데, 별도 특별법 추가는 불필요한 중복 규제에 해당한다. 부산시회는 처벌보다 예방 중심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산시회는 이미 매출액 3% 이내 과징금, 영업정지 등 과도한 처벌 규정은 평균 영업이익률(3.5%)이 낮은 중소 전문건설업체의 경영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연쇄 도산 및 일자리 상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건설현장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무시하고 각 주체에 게 동일 수준의 의무와 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현장 실무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현재 영국, 미국 등 해외 주요 선진국 역시 별도 건설안전 특별법 없이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등으로 안전을 관리하고 있어 본 제정안은 해외 사례와도 불일치한다. 부산시회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기존 법령을 개정·보완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주장하였으며 또한 근로자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도 책임을 묻는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0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하도급 계상 의무화

우리 협회는 9월 3일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하도급 계상 의무화를 부산광역시에 강력히 촉구하였다. 현재 제도는 발주자와 도급인을 중심으로만 계상·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어, 다수의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시공하는 하도급사가 실질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관계수급인(하도급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 계상 의무화를 통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는 발주자가 계약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계수급인에 대한 명확한 계상·지급 의무는 없다. 이로 인해 하도급사가 확보하는 안전관리비는 기본적인 보호구 구입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적극적인 안전조치 시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부족분은 하도급사가 자체 부담하고 있어 중소

전문건설업체의 경영상 큰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현행 구조에서는 원·하도급 간 공정한 비용 부담이 이뤄지지 않고, 안전관리비 부담이 일방적으로 하도급사에 전가되는 불공정 관행이 고착화되고 있다. 그 결과 현장의 실질적 안전 확보가 어려워지고, 산재 예방 활동에도 한계가 발생한다.

해외 주요국 역시 공정한 안전관리비 부담을 통해 현장 안전 확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추세인 만큼, 우리 제도 또한 관계수급인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화를 법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부산시회의 입장이다.

2025년 3/4분기 신기술 현황

지정번호 (지정일자)	개발업체	신기술명	주요 내용
1029 (2025.08.22.)	(주)캐어콘, (주)비케이이앤씨, 에스큐엔지니어링(주), (주)예한건설	텍스타일 그리드와 무기계 접착재로 구성된 FRM 복합재와 알칼리 회복제를 이용한 노후 콘크리트 구조물 유지관리 기술	KSIO ₂ , NaSiO ₄ , LiOH ₂ 등으로 구성된 알칼리 회복제를 이용해서 탄산화된 콘크리트 표면을 재알칼리화하고, 혼화제(고성능 감수제 등)로 부착력 및 내구성을 향상시킨 무기계 접착재와, 경사는 유리 섬유, 위사는 탄소섬유로 직조된 텍스타일 그리드를 포함한 FRM 복합재를 활용해서, 노후된 콘크리트 구조물 성능 및 내구성을 향상시켜 노후화된 콘크리트 구조물을 유지관리 할 수 있는 기술
1030 (2025.08.22.)	한국가스기술공사	형상 변화형 이중 플러깅 헤드 기술을 이용한 고압배관 차단 공법	유체의 공급중단 없이 고압배관 이설작업 등을 위해 배관의 특정 부분을 차단하여 유체를 흐르지 못하게 하거나 우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배관내부 이물질 등에 의한 누설을 방지하는 천연가스용 고압 배관 차단 공법
1031 (2025.08.28.)	(주)하이맥,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관경 25mm~65mm 탄소강관용 무용접 모듈화 배관 및 프리패브 공법	탄소강관 외부에 홈테를 내어 링을 끼우고 2중 누수차단 부품(오링 및 파이프패킹)들로 배관을 체결함으로써 배관 내부의 아연도금 상태 보존을 통한 누수 차단과 부식을 예방하는 무용접 링타입 배관 이음 방식으로 배관 접합부위에 대한 가공 및 조립공정은 공장에서 진행하고 현장에서는 배관 연결부를 바디와 너트로 단순 체결하는 공법
1032 (2025.09.12.)	(주)유니온물산, 디엘건설(주), (주)동해종합기술공사	Helix 구조의 PET 섬유복합체와 진동 분산시스템을 활용한 터널용 슛크리트 생산기술	Helix 구조를 갖는 PET 섬유복합체를 진동 분산시스템을 통해 균일하게 분산시켜 합성섬유와 슛크리트간의 뭉침 현상을 저감하여, 슛크리트의 인성에 대한 품질향상과 섬유의 유연한 특성으로 슛크리트내 섬유에 의한 저항성 감소에 따른 슛크리트 유동성 확보로, 리바운드를 저감하고 탄소배출량 감소 및 폐콘크리트 처리비 절감과 섬유 자체 리바운드에 의한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을 줄이는 터널용 슛크리트 생산기술
1033 (2025.09.18.)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엔에스테크닉스, (주)엔비텍이앤씨	공장에서 제작한 단열재 일체형 외장재 유닛 패널과 외장재 고정 부재(프레임 및 파이프 등)에 의해 발생하는 열교현상을 저감하는 무용접 하지 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존 건축물의 외장재를 부분 철거하고, 외단열 시공을 진행할 수 있는 기술로, 현장 시공 작업성 향상 및 산업 폐기물을 저감, 단열 성능을 향상하는 건식 외단열 시공 방법	공장에서 제작된 단열재 일체형 외장재 유닛 패널과 외장재 고정 부재(프레임 및 파이프 등)에 의해 발생하는 열교현상을 저감하는 무용접 하지 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존 건축물의 외장재를 부분 철거하고, 외단열 시공을 진행할 수 있는 기술로, 현장 시공 작업성 향상 및 산업 폐기물을 저감, 단열 성능을 향상하는 건식 외단열 시공 방법

※ 출처 :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www.kcnet.or.kr) → 신기술현황 → 지정현황(건설신기술)

전문건설인 비전과 도전



녹화조경(주) 대표이사 **김점식**

‘코스카 세움정원’.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가 협회 창립 40주년을 맞아 시민들에게 휴식과 일상의 여유를 드리기 위해 만든 지속 가능한 녹지공간이다. 그야말로 프로 중의 프로인 전문건설인들이 비장의 노하우와 비지땀을 뿜뿜 쏟아부어 만든 결과다.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명품이 바로 세움정원인 게다.

‘KOSCA세움정원’.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가 협회 창립 40주년을 맞아 시민들에게 휴식과 일상의 여유를 드리기 위해 만든 지속 가능한 녹지공간이다. 그야말로 프로 중의 프로인 전문건설인들이 비장의 노하우와 비지땀을 뿜뿜 쏟아부어 만든 결과다.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명품이 바로 세움정원인 게다.

세움정원을 조성하는데 힘쓴 태스크포스 감리단장 김점식(64) 부회장을 만났다. “세움정원은 한마디로 부산 전문건설인들의 ‘나눔’과 ‘함께’ 정신이 녹아든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움정원은 부산 해운대수목원 유희지 4450㎡(1300여 평)에 조성돼 지난 9월 22일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과 김형겸 부산시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한 준공식을 갖고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됐다.

“세움정원은 사실 부산시민들을 위해 뭔가 뜻깊은 일을 해야겠다는 김 회장의 강력한 의지가 작용해 시작된 사업입니다. 중앙회에서 보내주는 뜻깊은 창립 기념 예산을 체육대회 등으로 먹고 즐기는 데 낭비하지 말자는 거였죠. 부산에 길이 남을 상징물을 만들어보자는 회장 말씀에 너도나도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회장단이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짜낸 끝에 명품 정원을 만드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중앙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호응했고, 예산을 대폭 늘려 7억 5천만원 사용을 승인받았다.

회장단은 지난 3월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사업계획을 적극적으로 알렸고, 박 시장도 흔쾌히 승낙했다. 이어 정원 조성 작업 전반을 추진하는 태스크포스 감리단이 만들어졌고, 김 부회장이 단장이라는 중차대한 소임을 맡았다. 정석봉, 송유경, 정숙남 조경기술사와 토목 전문가인 이주상 감사가 단원으로 참여했고, 협회 조운석 부장이 간사를 맡았다.

“후보지로 세 군데를 검토했어요. 삼락공원과 화명수목원, 그리고 해운대수목원이었죠. 제반 사항을 정밀 검토한 결과 접근성 등이 우수한 해운대수목원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기념사업은 빠르게 진행됐다. 4월 14일 경남종합조경과 설계 계약을 한 데 이어 6월 13일 입찰에서 대아이앤씨(주)를 사업자로 선정했다.

“세움정원에 적용될 설계 개념이 남달라야 했습니다. 일반적인 조경 방식과는 차원이 다른 아이디어와 조경디자인, 그리고 깊은 정원 철학이 필요했죠. 프로정신이 단연 돋보이는 ‘작품’ 정원을 만들자는 거였어요. 시민들이 잘 보지 못하는 희귀 초화류와 수목들을 일일이 세심하게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채택된 게 웅장한 소나무와 팽나무, 독특한 아름다움을 지닌 배롱나무, 안개분수 등이었고요.”

정원 구성은 그의 말대로 참으로 독특하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전문건설인협회 영문명 코스카(KOSKA)의 첫 글자인 K자 형태로 산책길이 조성돼 있다.



정면에는 수령 100년 이상의 팽나무가 의젓하게 자리 잡고 있다. “가성비가 좋은 나무를 찾아 전국을 샅샅이 뒤진 끝에 충북 홍성에서 겨우 찾아냈습니다. 근원직경(지름)이 70cm, 수고가 무려 14m에 달하죠. 팽나무를 중앙에 배치한 건 나무가 ‘너그러움’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정원을 편하고 여유 있게 즐기시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세움정원의 핵심 조경개념이죠.”

정원 오른쪽에는 김 회장이 식수한 수령 200년의 육송이 떡하니 버티고 서있다. 5천만 원을 호가하지만 대부분 기부를 받았단다. 그리고 밑에서 안개분수가 피어오른다. 마치 공연장에서 보던 드라이아이스 같은 느낌이랄까. “아스라이 보이는 윤산을 배경으로 안개꽃이 몽글몽글 떠오르죠. 마치 무릉도원 같은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게 됩니다.”



✓ 팽나무



✓ 육송



✓ 삼색꽃 배롱나무



✓ 잔디정원

육송 뒤에는 세계에서 유일한 배롱나무(수령 150년)가 배치돼 있다. 왜 유일무이하냐고? 꽃이 빨강 보라 하양의 3가지 색으로 피어나기 때문이다. “가지마다 일일이 접붙여 키워낸 희귀목이죠. 조경전문가인 제가 20년 전부터 눈여겨 봐왔던 그야말로 명품입니다. 회원사 대표의 농장에 찾아가 ‘시민들이 보며 즐길 수 있게 하자’고 간곡히 설득해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고가목을 거의 무상으로 가져올 수 있었어요.”

이 나무는 7~8월 100일간 꽃이 핀다고 해서 목백일홍이라는 이름도 갖고 있다. 보는 이들에게 행복을 전해준다고 하니 찬찬히 감상해볼 일이다.



✓ 장송



✓ 평상 쉼터



✓ 디딤돌

정원 왼쪽에는 장송 7그루가 잔디밭 200평에 늘어서 있다. 장송들이 만들어내는 그늘 밑에는 평상이 설치됐다. 옛 산수화가 생각나지 않는가. 선비가 그늘진 평상에 편안하게 앉아 주위 풍경을 감상하는 그림말이다.

K자 형태로 이어지는 산책로에는 디딤돌들이 놓여 있다. 정성을 한껏 들인 느낌이 든다.

돌 표면에는 세움정원 이용객들이 전문건설업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건설업 및 12개 업종을 소개하는 문구를 새겨놓았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땅을 파고 새로운 길을 열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도시 재생의 시작, 안전하게 짓고 안전하게 허물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마감의 예술, 안과 밖을 아름답게 구성하다!	 철강구조물공사업 - 강철로 만드는 도시의 기동, 튼튼한 뼈대를 세우다!
 실내건축공사업 - 실내공간에 삶을 불러들이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도시의 생명을 잇는 깨끗한 물길을 열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친환경 공간을 꾸며, 도시를 푸르게 물들이다!	 수중·준설공사업 - 강과 바다 깊은 곳의 숨통을 틔우고 물길을 다듬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창과 지붕, 금속으로 공간을 디자인하다!	 철도·궤도공사업 - 사람과 도시를 연결하는 길을 열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세상의 뼈대를 세워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	 승강기·석도공사업 - 사람과 공간을 잇는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수단을 만들다!

사이 공간에는 36종에 이르는 아름답고 희귀한 초화류 2만5천 본이 심어졌다. 수크령, 개미취, 가우라, 아스타. 금계국 등 이름조차 듣기 힘든 것들이다. “원래 1만9천 본을 계획했다가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뭔가 썰렁한 느낌이 들어 6천 본을 추가했습니다. 4월에 개화하는 서부해당화가 단 연 눈에 띄는 아름다움을 자랑하죠.”

이처럼 세심한 조경철학이 곳곳에 배어있는 명품 정원은 흔치 않을 듯하다. “실제 공사비는 10억 원을 훨씬 웃돕니다. 회원사들의 정성과 기부 덕택으로 어렵사리 예산 범위 내에서 완공할 수 있었어요. 힘써 주시고 동참해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초화류 식재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은 김 단장에게 사업 진행 중 어려움이 없었느냐고 문자 손수건을 꺼내 이마를 훔친다. 그만큼 힘들었다는 얘기다.

먼저 해운대수목원의 난관부터 꺼낸다. “과거 석대 쓰레기매립장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메탄가스가 새어 나오고 있습니다. 밑에 부직포를 깔았다고는 하지만 현장 답사 때 말라 죽어가는 나무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고민 끝에 결국 해결책을 찾아냈죠. 관을 매설해 세움정원 바깥쪽으로 빼내니까 되더군요. 우리가 누굽니까. 부산 제일의 전문가집단 아닙니까. 허허.”

생고생한 적도 있었다. 소나무를 구하러 강원도 삼척 농장까지 찾아가 150그루 중에서 가장 좋은 7그루를 골랐더니 농장주인 낯빛이 확 달라지더라는 것이다. “자신이 자식처럼 애지중지하는 나무들을 족집게처럼 집어내니 깜짝 놀랐던 거죠. 아무리 설득하고 돈을 더 주겠다고 해도 거절합니다.” 그래서 다시 강원도 강릉의 오지 농장을 찾아가 겨우 소나무들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세움정원은 부산지역 전문건설인들이 혼신의 힘을 쏟고, 역경을 헤쳐가며 이룬 놀라운 성과다. 하지만 정원에 깊게 스며든 각별한 의미를 잊어선 안 된다. 그건 바로 ‘나눔’ 정신이다. ‘자신들만의 놀고 즐기는 잔치’를 결연히 거부하고, 시민들과 함께하겠다는 공헌 의지가 바로 그렇다.

김 회장을 비롯한 부산의 전문건설인들은 ‘행동으로 존재하라’는 돈키호테의 말대로 거침없이 실천에 옮기는 용기와 결단력을 보여줬다.

그건 수직적인 베풀이 아니라 수평적인 나눔이었다. ‘함께’ 정신이 없이는 불가능한 실천덕목이 나눔이 아니던가.

세움정원을 품은 해운대수목원이 시민들이 즐겨 찾는 부산의 명물이 되기를 기원한다.

글 최원열



✓ 수목검수

01 | 국가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및 계약지침 연장 안내

기획재정부에서는 재난,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의 적용 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하였다.

관련	국가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
연장	'25. 12. 31까지	'25. 12. 31까지
주요 내용	□ 경쟁입찰에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수의계약 허용 (제27조제3항) □ 입찰보증금 50% 인하(제37제1항) - 입찰금액 대비 5/100 → 25/1000 이상 □ 계약보증금 50% 인하(제50조제1항) - 계약금액 대비 15/100 → 75/1000 이상 □ 공사이행보증서 50% 인하(제52조제1항) - 계약금액 대비 40/100 → 20/100 이상 □ 검사기간 단축(제55조제1항) - 완료통지일로부터 14일 → 7일 이내 □ 대가지급 기한 단축(제58조제1항) - 청구일로부터 5일 → 3일 이내	□ (긴급입찰) '25.12.31.까지 모든 경쟁입찰은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긴급입찰로 발주 가능 □ (입찰보증서의 지급각서 대체) - 입찰보증금 대신 지급각서를 제출 □ (선금·하도급대금 신속지급) ○ (선금) 14일 이내 → 5일 이내 ○ (하도급대금) 15일 이내 → 5일 이내 □ (선금지급한도 확대) - 100분의 70 → 100분의 100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02 | 지방계약법 시행령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연장 안내

「지방계약법 시행령」 상 입찰·보증금 인하, 검사·대가지급기간 단축 등 한시적 특례의 적용기간이 당초 2025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개정 주요 내용

- 수의계약 절차 완화
 - (기존) 1회 유찰 시 재공고 후 수의계약 가능
 - (변경) 1회 유찰 시 재공고 없이 수의계약 가능
- 보증금 인하
 - (입찰보증금) 5% → 2.5%
 - (계약보증금) 10% → 5%
 - (계약이행보증금) 40% → 20%

- 소요기간 단축
 - (검사기간) 14일 → 7일 이내
 - (대가지급기간) 5일 → 3일 이내

2. 적용기간 : 2025. 7. 1. ~ 2025. 12. 31.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03 |

지방자치단체 지방계약 집행 특례 연장 안내

지역경제 활력제고와 지방재정의 신속집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계약 시 선금 지급, 계약심사 등 ‘지방계약 집행 특례’가 ‘25.12.31.까지 연장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적용기한
선금 지급	지급대상	(기존) 공사, 용역, 물품제조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 상대방의 청구에 따라 선금 지급 (특례)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물품구매 계약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선금 지급 가능 ※ 관급자재 신고지 제도, 분할납품을 통한 기성대가 지급 우선 활용 등	'25.12.31. (신청일 기준)
	지급시기	(기존) 계약체결 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 착수 이후 선금 지급 (특례) 이행 착수 지연과 관계없이 선금 지급	
	계속비 사업	(기존) 계약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경우 해당 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선금 지급 (특례) 수년간 사업이행하는 계속비계약은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선금 지급	
	이월사업	(기존) 계약체결 후 이월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선금 지급 (특례) 이월되는 사업은 이월금액을 포함한 총계약금액 기준으로 선금 지급	
	추가지급	(기존) 기성금 지급 후 원자재 가격 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 미지급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추가 선금지급 가능 (특례) 계약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선금 및 기성금을 기지급한 경우에도 최대선금 지급 한도 범위내에서 추가지급 가능	
원가	계약심사	(기존) 기초자치단체에서 종합공사 3억원, 기타공사 2억원, 용역 7천만원, 물품 2천만원 이상을 발주하려는 경우 원가의 적정성 여부를 의무적으로 심사 (특례) 기초자치단체에서 종합공사 5억원, 기타공사 3억원, 용역 2억원, 물품 2천만원 이상을 발주하려는 경우 원가의 적정성 여부를 의무적으로 심사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04 |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안내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공포되어 시행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개정 주요 내용

-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공포·시행일 : 2025. 7. 8.)
 - 부정당업자 제재 완화
 - 입찰 방해 행위를 한 자 중 책임이 경미한 경우,
 -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신 과징금 부과 가능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시행일 : 2025. 7. 8. / 일부규정 2025. 8. 9. 시행)
 - 공사비 현실화
 - 공사원이 산정 시 적용되는 일반관리비율 상한 6% → 8% 상향(시행일 : 2025. 8. 9.)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예정가격 작성기준도 동일하게 개정 추진 중

2. 시행일

- 지방계약법 시행령 : 2025. 7. 8.부터 시행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 2025. 7. 8. 공포, 일부규정은 2025. 8. 9. 시행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05 |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 예규 개정사항 안내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예규)」이 일부 개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개정 주요 내용

- 공사 일반관리비율 상향
 - 예정가격 결정 시 적용되는 공사 일반관리비율이 구간별 1~2% 상향 조정됨.
 - 5억 미만 : 6.0% → 8.0% (+2.0%p)
 - 5억 ~ 30억 : 5.5% → 6.5% (+1.0%p)
 - 30억 이상 : 5.0% (현행 유지)
- ▶ 종합공사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포함)
 - 50억 미만 : 6.0% → 8.0% (+2.0%p)
 - 50억 ~ 300억 : 5.5% → 6.5% (+1.0%p)
 - 300억 이상 : 5.0% (현행 유지)
- ▶ 전문공사 (기타 공사 포함)

2. 시행일 : 2025년 8월 9일부터 적용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06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사인 금지청구제 도입) 안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이 2025년 8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피해 수급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법원에 직접 불공정행위의 금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사인 금지청구제가 도입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개정 주요 내용

- 사인 금지청구제 도입
 - 법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수급사업자는 법원에 직접 금지 및 예방 청구 가능
 - 기존과 달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거치지 않아도 됨
- 금지청구 대상 행위 : 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하는 12개 불공정거래행위
 - 부당특약 설정,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기술자료 유용 등
- 기술유용행위 관련 조치
 - 기술유용행위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위반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설비 제거 등을 함께 청구할 수 있는 규정 신설

2. 시행일 :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공포 후 3개월 경과 시점부터 시행 예정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향에서 확인 가능하다.



01 |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 노무비 직접 지급 규정 안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7항 및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노무비를 건설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노무비 직접 지급 의무** : 「건설산업기본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함. 이는 인력소개소 등 다른 알선을 통해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계좌 지급 원칙** : 임금은 원칙적으로 건설근로자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해야 함. 대리인 계좌 지급 금지: 시공팀장, 반장, 인력소개소 등 대리인 명의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다만, 근로자가 일반 계좌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현금으로 직접 지급한 후 해당 업체 명의 계좌로 지급할 수는 있음.

· **위반 시 제재** :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음

02 |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 방지 유의사항 안내

건설사업자는 기한 내에 반드시 교육·신고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필요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각종 법령정보 및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 불이익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 유의사항

■ 건설업 신규등록 교육 이수

(의무) 건설업 신규 등록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 8시간 이상 교육 이수

(과태료) 미이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

(문의)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교육센터 (edu.kosca.or.kr)

☎ 02-3284-1076

■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통보

(의무)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공사대장 기재사항 통보

(대상) 원도급 1억원 이상, 하도급 4천만원 이상 도급계약

(과태료)

– 미통보 시 :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

– 해당 공사 완료일까지 미통보 시 :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 및 시행령 제26조

(문의) 키스콘(cws.kiscon.net) ☎ 1588-8456 / 대한전문건설협회 ☎ 051-633-0260

■ 건설업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

(의무) 상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법인(주민)등록번호 등 변경 시 30일 이내 변경 신청

(과태료) 미신고 시 5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 제2항 및 시행령 제12조의3

(문의) 본점 소재지 등록관청 / 대한전문건설협회

☎ 051-633-0260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03 |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 오류 시 조치 매뉴얼 안내

국토교통부는 차세대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으로 전환·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스템 간 정보 연계 송수신 오류 등 일시적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 주요 내용

■ 시스템 개편 현황

- 국토교통부, 신기술 적용 클라우드 플랫폼 기반 차세대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오류 발생 가능성

- 시스템 간 정보 연계 송수신 과정에서 일시적 오류 발생 가능
- 검사유효기간 미연장 시, 해당 건설기계 현장 반입 불가 등의 불이익 초래 우려

■ 조치 매뉴얼 안내

- 오류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참고하여 조치 필요

※ 매뉴얼 등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04 |

굴착공사 신고제도 및 지하매설 통신시설 확인 안내

굴착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도시가스(고압가스) 배관의 굴착 파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3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3조의3에 의하여, 굴착 공사 전에 미리 굴착공사를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일부 건설현장에서 케이블타이 및 사전확인 없이 굴착작업 중 통신시설물이 파손되거나 케이블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복구시간 장기화로 공기 지연 및 피해보상 등의 손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굴착공사 신고대상

-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 및 고압가스 배관이 매설된 지역의 도로, 아파트 단지, 사유지 내에서 구멍 뚫기, 말뚝 박기, 터파기 등의 굴착공사(수작업 제외)

2. 신고처

- 전화 1644-0001(상담사 안내)
- 인터넷 www.eocs.or.kr
- 모바일 m.eocs.or.kr

■ 지하매설 통신시설 통신사별 사전 확인 연락처

- KT : 1551-0499
- SK텔레콤 : 1588-7555
- LG유플러스 : 1544-3633

3. 미신고시 벌칙사항

-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입회요청 없이 임의굴착 하는 경우도 같은 처벌)

4. 회원사 유의사항

- 굴착 공사 전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1644-0001)로 신고하여, 가스배관 파손 예방
- 굴착 예정 시 반드시 통신사별 사전 연락
- 통신시설 위치 확인 후 협의 절차 진행
- 공사 전 담당자와 소통하여 중요구간 인지
- 광케이블 위험구간은 담당자 입회 요청 가능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05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 및
「폭염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안내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025. 6. 1.)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시행(2025. 7. 17.)하였으며,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사업장 대응지침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회원사는 보건조치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여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법령 위반으로 인한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사항 (2025. 6. 1. 시행)

- 제39조(보건조치) 개정
 - 사업주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에 폭염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신설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주요 내용 (2025. 7. 17. 시행)

- 폭염작업 시 보건조치 사항 (체감온도 31도 이상)
 - 2시간 이상 작업 시 다음 중 하나 이상 의무 실시
 - 냉방·통풍장치 설치·가동
 - 작업시간대 조정
 - 주기적 휴식 부여

- 체감온도 33도 이상 작업 시
 -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의무
 - 현장 여건에 따라 1시간마다 10분 휴식도 가능
 - 예외 : 휴식 부여가 곤란한 경우
 - 개인용 냉방장치 지급·가동
 - 개인용 보냉장구 지급·착용
- 기타 보건조치
 - 시원한 물, 소금, 음료(생수 등) 충분히 비치
 - 온열질환자(의심자) 발생 시 즉시 119 신고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06 |

호우 피해 대비 건설현장 관리 철저 안내

최근 집중 호우로 인하여 도로 옹벽 붕괴 등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부산 지역에는 집중 호우가 마무리되어 당분간 큰 비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는 잔류 습기와 지반 약화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집중호우 관련 현장 안전관리 중점 사항

- 안전총괄책임자는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 현장 작업을 철저히 관리·감독
- 타워크레인 임대업체 및 조종사는 작업 전 장비 상태를 반드시 점검하고, 작업 중 안전수칙을 엄격히 준수할 것
- 순간풍속 10m/s 초과 시 설·해체·수리 작업을 중지하고, 15m/s 초과 시 운전 작업을 즉시 중단할 것
- 인양물 위 작업 금지 등 작업 안전수칙을 철저히 이행할 것
- 배수로 확보 및 배수시설 정비, 비탈면 및 옹벽 등 취약 시설물 점검 및 응급 복구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07 |

건설사고 발생시 통보 업무 철저 이행 안내

건설공사 참여자(시공사)는 건설사고 발생 시 6시간 이내 발주청 및 인허가 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 및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통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요청하였으므로, 회원사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업무 처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1. 법적 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67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4, 제105조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61조

2. 사고 발생 시 보고 절차

- 보고 기한
 - 사고 인지 후 6시간 이내 발주청 및 인허가 기관에 통보
- 신고대상 : 건설공사 시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고
 -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 발생
 - 1천만 원 이상의 재산피해 발생

■ 보고 내용

- 사고 원인
- 사고 발생 후 조치사항
- 향후 조치계획
- 재발방지 대책
- 보고 방법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 등을 통해 제출

3. 회원사 협조사항

-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보고 체계 마련
- 보고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여 사고 예방 및 현장 안전 강화에 기여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08 |

건설현장 전담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상 업무 준수 안내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전담 안전관리자의 업무 범위 준수를 재차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회원사는 전담 안전관리자가 본연의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지도하여야 하며, 잘못된 관행으로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 적용대상 : 해당 현장은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 공사금액 120억 원 이상 건설현장
- 토목공사의 경우 150억 원 이상 건설현장

2. 전담 안전관리자의 업무범위 (법령상 고유업무)

- 위험성평가 보좌, 안전교육 지도, 순회점검, 재해조사 및 재발방지 활동
-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3. 유의사항

- 다른 법(예: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따른 안전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도록 지시 금지
-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 ※ 전담 안전관리자는 반드시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고유업무만 수행해야 하며, 타 법령에 따른 추가업무 지시나 겸직은 금지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09 |

폭염 대비 건설현장 관리 철저 안내

최근 국토교통부는 전국적으로 폭염 특보가 확대됨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인명피해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폭염 대응 대책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회원사는 폭염 대비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근로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1. 폭염 대비 건설현장 대응 강화

- 폭염특보 발효 시, 현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 작업시간 운영
- 폭염이 심한 시간대에는 건설공사 작업 중지 등 안전대책 시행
- 온열질환 등 건강 이상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 및 병원 이송
 - (참고) 체감온도 33℃ 이상 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부여 의무
 -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5. 7. 17. 시행)

2. 온열질환 예방 5대 기본수칙 준수

- ① 시원한 물
- ② 바람·그늘
- ③ 휴식
- ④ 보냉장구 지급
- ⑤ 응급조치(119 신고)

3. 온열질환 민감군 조치 요령

- 폭염작업 전 온열질환 증상 및 응급조치 요령 교육
- 작업 중 주기적으로 작업자 건강상태 확인
- 민감군
 - ① 폭염작업 신규 배치자
 - ② 과거 온열질환 경력
 - ③ 고령자 및 고혈압 등 질환자

4. 기타사항

- 폭염으로 인해 근로자 보호 등을 위해 작업이 곤란한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공사 일시정지, 계약기간 연장, 계약금액 조정도 가능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10 |

2025년 건설공사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개정 안내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2025년 적용 건설공사 수요응답형 표준품셈을 개정 확정·공고하였다. 우리사회에서는 8월 1일 관련 내용을 회원사에 안내하였다.

□ 2025년 적용 건설공사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개정 항목

계	공통	토목	건축	기계	유지관리
106	47	18	11	7	23

※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11 | 건설현장 근로자 안전을 위한 '건설안전패스(App)' 운영 안내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과 효율적인 교육 이수 관리 강화를 위해 2025년 7월 1일부터 '건설안전패스(App)'를 정식 운영하고 있다. 회원사는 소속 근로자들이 모바일 이수증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현장 출입 시 QR코드 확인 절차를 철저히 해야 한다.

1. 서비스 개요

- 서비스명 : 건설안전패스(App)
- 적용일 : 2025년 7월 1일부터 운영
- 목적 : 건설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의 발급·관리 디지털화

2. 주요 특징 및 장점

- 스마트폰에서 이수증 발급·관리 가능 → 플라스틱 카드 불편 해소
- 위조 이수증 사용 방지 → 신뢰성 강화
- QR코드를 통한 현장 전자식 교육 이수 여부 즉시 확인 가능
- 현장 출입 관리의 편리성 및 효율성 제고

3. 회원사 협조사항

- 소속 일용근로자들이 반드시 모바일 이수증 발급을 받도록 안내
- 현장 출입 시 건설안전패스 QR코드 확인 절차 적극 활용

※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12 |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단속 안내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지자체, 유관기관은 2025년 8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여부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불법하도급 행위 적발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회원사는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1. 단속 개요

- 기간 : 2025. 8. 11. ~ 9. 30.
- 대상 : 전국 건설공사 현장
- 온열질환 등 건강 이상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 및 병원 이송

2. 불법하도급 시 제재

-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가능
- 단속 결과에 따라 사업 정지, 과징금, 등록 말소 등 강력한 제재 부과

3. 회원사 협조사항

- 불법하도급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 조치 강화
- 우리시회 홈페이지(www.kosca21.or.kr) 공지사항에 업로드된 자료 확인
 - 불법하도급 체크리스트, 단속요령, 예방 매뉴얼, 처벌 규정 등
- 관련 지침을 숙지하여 단속 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13

지붕공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안내

최근 지붕공사 중 근로자 추락사고 발생과 더불어 가을철 작업량 증가에 따른 추락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붕공사의 추락사고를 선제적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우리시회는 9월 1일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핵심 안전조치'를 회원사에 안내하였다.

※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14

2025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시중노임단가) 안내

건설공사 예정가격 작성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노무비 산출 근거로 활용되는 '2025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시중노임단가)'이 통계청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공표·승인(제365004호) 되었다.

1. 조사개요

- 조사목적 : 건설부문에 고용된 기능직종의 시중노임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여 건설공사 원가 산정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토록 함.
- 법적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제365004호)
- 조사 기준기간 : 2025. 5. 1 ~ 5. 31
- 조사방법 : 자계식 우편조사·인터넷 조사와 타계식 현장실사 병행 실시
- 이용상의 주의사항
 - (1) 통계전반에 걸쳐 사용한 「-」의 기호는 조사되지 않았거나, 비교불능을 나타냄
 - (2) 본 조사노임은 1일 8시간 기준(단, 잠수부는 6시간 기준)금액임.
 - (3) 직종번호 앞의「*」표시는 조사 현장수가 5개 미만인 직종, 「**」표시는 조사되지 않은 직종이므로 유의하여 적용

2. 조사내용

- 평균임금현황
 - (1) 전체직종 : 278,832원[2025년 상반기(276,011원) 대비 0.13% 증가]
 - (2) 일반공사 직종 : 267,306원(2025년도 상반기 : 264,277원)
 - (3) 기타 직종 : 274,537원(2025년도 상반기 : 270,610원)
- 직종별 노임단가 : 부산시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2025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 참조

3. 2025년도 하반기 노임적용시점 : 2025. 9. 1부터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15 |

「2025 스마트건설 EXPO」 행사 안내

국토교통부에서 국내외 스마트 건설 기술 및 혁신적인 건설 솔루션을 한자리에 모으는 「2025 스마트건설 EXPO」를 개최할 예정이다.

1. **일시** : 2025년 11월 5일(수) ~ 11월 7일(금), 3일간
2. **장소** :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제7, 8홀)
3. **주최** : 국토교통부
4. **주관** :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5. **주요 프로그램** : 개막식, 스마트건설 기술 전시 및 시연, 기술 발표, 전문 포럼, 세미나, 투자 설명회 등
6. **문의** : 국가철도공단 ☎ 042-607-4754

※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16 |

건설현장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중 휴대폰 사용금지 안내

최근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작업·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중대산업재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이에 회원사는 현장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휴대폰 사용금지 지침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1. 추진 배경

- 우리협회는 정부와 함께 안전·보건 문화 정착 및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지속 추진 중
- 스마트폰 사용 증가로 작업·보행 중 안전사고 발생 위험 확대

2. 안내사항

- 현장 근로자에게 작업·보행 중 휴대폰 사용 금지 교육 강화
-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 정기 교육시간을 활용하여 지속적 전파
- 현장 내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수시 점검하여 사고 예방

3. 회원사 당부사항

- 휴대폰 사용금지는 단순한 권고가 아닌 근로자 생명과 직결된 안전관리 조치임을 인식
- 회원사는 현장 관리·지도를 강화하여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에 적극 협조

17

교량 거더 붕괴사고 조사결과 안내 및 사전 예방 관련 안내

세종~안성 고속도로 청용천교 구간에서 발생한 거더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와 주요 재발방지 대책이 발표되었다. 회원사는 아래 내용을 숙지하여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1. 사고 주요 원인

- 전도방지대책(스크류잭 등) 임의 해체, 안전인증 미비 장비(런처) 후방 이동 작업, 상시 검측·관리 소홀, 복합적 위험의 누적 등

2. 재발방지 주요 대책

- 전도방지 및 장비 안전 강화
 - 전도방지대책 설치·해체 시기 명확화 및 관리 강화
 - 현장 실정에 맞는 임시받침 등 안전대책 마련
 - 고위험 장비의 법적 안전인증 및 감독 철저
- 관리·검측 체계 개선
 - 검측 및 관리 책임자 지정·확대
 - 발주처와 시공사 간 역할 명확화
 - 임시가설구조물 검측 강화
- 설계·계획의 명확화
 - 공사시방서 및 계획서 기술 정확성 확보, 용어 통일
 - 시공 순서와 현장 부합성 강화
- 위험관리체계 및 참여 확대
 - 위험성 평가 실질화 및 결과 공유
 - 위험 발견·대처 및 작업중지 체계 강화
 - 말단기술인력까지 안전관리 참여 확대

3. 회원사 당부사항

- 조사보고서에 제시된 안전대책을 모든 현장에 신속히 적용
- 설계·시공·관리 단계에서 안전 문제 사전 예측·계획·점검 (임의 변경·생략 금지)
- 안전관리 규정과 매뉴얼을 철저히 준수
- 현장 실정과 역량을 반영한 계획 수립 및 책임자 감독 강화



질의

실내건축공사업자가 건설공사를 하다가 일부 공종을 쪼개 1천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부분을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개인에게 하도급 줄 수 있는지?

실내건축공사업자가 건설공사를 하다가 일부 공종을 쪼개 1천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부분을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개인에게 하도급 줄 수 있는지?

종합공사의 경우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고, 전문공사의 경우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인 경우와 조립·해체 가능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의 설치공사는 건설업 면허를 등록하지 않은 자도 시공이 가능함.

회신

공사예정금액은 1건 전체공사의 설계금액을 의미하며, 경미한 공사에 대하여 건산법상 건설공사의 시공자격을 면탈할 목적으로 동일한 공사(동일공종)를 인위적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공사예정금액이 되어야 함.

근거

국토교통부 국민신문고 전자민원, 2024.6.18



질의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등록 인테리어업자와 도급계약 후 시공이 완료되었는데, 건산법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등록 인테리어업자와 도급계약 후 시공이 완료되었는데, 건산법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시공자가 실내건축공사업 등 건산법 상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아닌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소관 하자담보책임 규정도 적용하기 곤란함.

회신

다만, 시공부분에 대한 이견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계약 관계서류, 민법 및 계약관계 법령에 따라 당사자 간의 합의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근거

국토교통부 국민신문고 전자민원, 2024.6.18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두1990 판결 [시정명령등] [공2011상,740]
위반행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을까?

판시사항

[1]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다는 의미

[2] 원사업자인 자동차 제조회사가 자신에게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55개 중소기업 수급사업자들 중 26개 수급사업자의 789개 품목에 관하여 1, 2차에 걸쳐 납품단가를 3.2~3.5% 인하한 행위가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등을 내린 사안에서, 원사업자의 2차 인하행위가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의 위반행위가 있었으나 그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2항 제1호 각 규정의 내용 및 체계와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에 관한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법 제4조 제2항 제1호에서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다는 것은, 둘 이상의 수급사업자나 품목에 관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상황, 시장상황, 목적물 등의 종류·거래규모·규격·품질·용도·원재료·제조공법·공정 등 개별적인 사정에 차이가 있는데도 동일한 비율 또는 위와 같은 차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일정한 구분에 따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결정된 인하율이 수급사업자에 따라 어느 정도 편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기준에 비추어 전체적으로 동일하거나 일정한 구분에 따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원사업자인 자동차 제조회사가 자신에게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55개 중소기업 수급사업자들 중 26개 수급사업자의 789개 품목에 관하여 2001. 12.부터 2003. 5.까지 1, 2차에 걸쳐 납품단가를 3.2~3.5% 인하한 행위가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등을 내린 사안에서, 수급사업자들의 경영상황과 목적물의 종류 등은 물론 납품물량 증가율까지 서로 다른데도, 원사업자가 저수익 차종의 재료비를 3.5% 인하하여 수익성을 개선할 계획을 세운 다음 2차 인하를 단행함으로써 수급사업자들 중 1차에서 1.8~2.0% 인하한 20개 업체에 대하여는 1.3~1.5% 추가 인하하여 인하율이 합계 3.2~3.5%에 이르게 하고, 나머지 6개 업체에 대하여는 3.4~3.5% 인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원사업자의 2차 인하행위가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같은 법 제13조 등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기타 '당해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이 제13조 등의 위반행위 그 자체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제25조의3 제1항) 형사처벌을 하도록(제30조 제1항) 규정하고 있는 것과 별도로 그 위반행위를 이유로 한 시정명령의 불이행에 대하여도 형사처벌을 하도록(제30조 제2항 제2호) 규정하고 있는 점 및 이익침해적 제재규정의 엄격해석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위 법 제13조 등의 위반행위가 있었다라도 그 위반행위의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위 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시정명령은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건설관련 법 상담

하도급계약과 연대보증의 범위

A사는 B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의 안전한 진행을 위해 연대보증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평소 B사와 친분이 있는 C사가 하도급계약서 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연대보증을 했다. 그러나 A사는 B사의 공사부실 등을 문제 삼아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연대보증을 선 C사에 대해서도 함께 청구를 했다.

C사는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연대보증한 것이지 그에 파생된 손해배상채무까지 연대보증을 선 것이 아니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여기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민간공사의 경우 법률적 문제에 있어 항상 관급공사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관급공사는 법령에 근거해 그 내용과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많다. 반면 민간공사의 경우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 의사의 해석 문제로 귀결되고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먼저 관급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에 의하면,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해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이와 같은 관청공사도급계약의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공보증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민간공사도급계약의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은 각종 보증서의 구비 여부, 도급계약의 내용, 보증경위 등을 참작해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률행위의 해석에 의해 판단되는데,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수급인의 책임과 마찬가지로 금전채무보증과 시공보증을 모두 포함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C사는 특별한 사정, 즉 자신의 연대보증의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은 이상 A사의 손해배상 청구에 응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보증을 할 때는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면밀히 살펴 결정해야 한다. 물론 C사가 채무를 이행할 경우 B사에 대해서는 민법 제448조에 의해 그에 상응하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있다.

[출처] 대한전문건설신문(<https://www.koscaj.com>)

- 황보 윤 법무법인 공정 변호사

건설업 기업진단 매출채권의 평가(2)

<건설업 기업진단 매출채권의 평가(2)>

4. 장기성매출채권과 미수금의 평가

건설업과 관련해 발생한 매출채권과 미수금을 2년이 경과했음에도 아직 수령하지 못했다면 부실자산으로 봅니다. 기업진단지침은 2년이 경과한 매출채권은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래의 세 가지는 예외적으로 2년이 경과했어도 실질자산으로 봅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을 채권. 이 경우 제25조에 따른 관련 부채를 차감해 평가해야 합니다. 국가 등으로부터 받을 채권은 지급시기가 지연되더라도 대손이 발생할 여지는 없으므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2)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 금액이 확정됐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받을 채권으로, 채권 회수를 위한 담보의 제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공된 담보물을 통해 회수가능한 금액. 즉, 판결이 확정됐거나 소송 중인 채권에 대해 반드시 담보를 제공받아 채권회수가 가능해야 한다는 것으로, 확정판결을 받았어도 채무자가 무자력이면 채권회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승소한 확정판결만으로 회수가능성을 입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 확정된 회생채권도 실질자산으로 판단합니다.

5. 매출채권을 대물변제 받은 경우 평가

2020년 4월 20일 개정된 기업진단지침의 내용으로 실질자산의 인정범위가 확대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매출채권을 '건물 또는 토지'로 회수한 경우 그 건물과 토지는 취득한 날부터 2년간 실질자산으로 봅니다.

즉 대물변제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개정 전에는 건물과 건물의 부속토지만 인정했으나 개정으로 인해 대물로 토지만 받았을 경우에도 실질자산으로 인정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경우에도 위의 장기성 매출채권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2년 이내 변제받은 토지와 건물을 처분해 현금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수용 세무사

코타 조세연구소 대표

[출처] 대한전문건설신문(<https://www.koscaj.com>)

부산 전문건설업체 등록현황

(2025. 9. 30. 기준)

지 역	업체수	등록수
중구	40	63
동구	69	114
서구	29	39
사하구	104	151
영도구	24	41
동래구	235	317
남구	133	175
금정구	298	435

지 역	업체수	등록수
연제구	169	252
해운대구	286	398
수영구	137	214
부산진구	194	267
북구	109	156
사상구	158	208
강서구	323	448
기장군	242	367
합계	2,550	3,645

부산 진출·입 전문건설업체 현황

(2025. 07. 01. ~ 2025. 09. 30.)

전출업체 현황

(주)구조건설 (대표자: 장철선, 서울)	(주)주운건설 (대표자: 이주영, 경남)
신혁이앤지(주) (대표자: 이주식, 충남)	(주)주일건설 (대표자: 박강일, 울산)
(주)엘엘하우징 (대표자: 이광호, 서울)	진화건설(주) (대표자: 차인기, 충북)
유건이앤씨(주) (대표자: 김영숙, 전북)	(주)한바다 (대표자: 손정화, 경북)
(주)이건디자인 (대표자: 박복순, 경남)	(주)힐텍 (대표자: 최세원, 경남)

전입업체 현황

(주)대연이앤씨 (대표자: 허재혁, 경남)	(주)신의건설 (대표자: 권미진, 울산)
(주)더기린 (대표자: 조희승, 안정수, 울산)	(주)인성 (대표자: 김영민, 경기)
(주)동온디앤씨 (대표자: 조명환, 강원)	(주)인테라 (대표자: 이문수, 경기)
(주)버쿤스건설 (대표자: 조준호, 경남)	(주)주운건설 (대표자: 이주영, 경북)
(주)서원토건 (대표자: 최근호, 경북)	(주)천지개발산업 (대표자: 이성준, 경남)
승원토건(주) (대표자: 이성락, 충남)	토암건설(주) (대표자: 남종률, 경남)
시진코리아건설(주) (대표자: 김시울, 강원)	(주)호산이앤씨 (대표자: 성호기, 경남)

부산 전문건설업체 상호변경 현황

(2025. 07. 01. ~ 2025. 09. 30.)

변경전	변경후
(주)기승이엔씨	(주)가람건설이엔씨
(주)남광석재	(주)남광건설
(주)태평이엔지	(주)도원건설
(주)일우건설산업	(주)동영건설
(주)서경이엔씨	(주)성도

변경전	변경후
(주)모우	(주)제이엘피
대호알미늄(주)	한결(주)
(주)한샘특판부산경남대리점	(주)해커디자인그룹부산
(주)해커디자인그룹부산	(주)해커디자인하우스부산

부산 전문건설업체 대표자변경 현황

(2025. 07. 01. ~ 2025. 09. 30.)

상호명	변경전	변경후
(주)가람건설이엔씨	박세광	김숙재
(주)그린조경	최성부	조정호
금강공업(주)	전장열, 전재범	전장열, 전호준
(주)남동기업	김서영	김채영
(주)동린건설	주유성	황보대성
디앤씨디자인(주)	이태현, 김동훈	김동훈, 황성돌
(주)로운종합건설	서종석	박현정
(주)미림조경개발	차지영	김미경
(주)보움	송한수	최경희
서연이엔씨(주)	이해성	윤선경
(주)성운건설산업	정지은	박성운
(주)세일엔지니어링	허응도	전상균
수환건설(주)	최남식	최재영
(주)에스지건설	정영희	박진형

상호명	변경전	변경후
(주)에이탑이엔지	정병진	김규완
연우종합건설(주)	박현정	최정원
오션씨엔아이(주)	윤종문	김제훈
(주)인성	김성중	김영민
(주)정일산업	권상임	권상임, 김태훈
(주)제일협성	박정민	조환승
(주)진명디엔씨	김영환	신종운
(주)진원건설	김채원	최원밀
청록건설(주)	이태기	정혜숙
(주)팔팔이엔지	박상주	이미혜
한결(주)	허종태	이지영
(주)한국비전아이디	박성철	박성철, 하정아
(주)호암건설	안명수	곽순덕
화양건설(주)	박우방우	정재이

부산시회 신규회원 현황

(2025. 07. 01. ~ 2025. 09. 30.)

 (주)남동 부산광역시 동래구 반송로 352, 406호 (명장동, 훈창빌딩) 김국환 T : 051-331-1495 보유업종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서연이앤씨(주) 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단지1로 50, 212-205 (대저2동) 윤선경 T : 051-703-0234 보유업종 : 상·하수도설비공사	 (주)씨에스에프알피건설 부산광역시 사하구 두송로 59, 생활시설동 (장림동, 화인빌리지) 한준모 T : 051-262-2423 보유업종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엘케이건설(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달맞이길65번길 33, 상가동 209호 (중동, 달맞이 유림노르웨이숲) 이필홍 T : 보유업종 : 구조물해체·비계공사	 (주)오알스튜디오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강로 230, 3층(장전동) 김희중 T : 051-516-9653 보유업종 : 실내건축공사	 우리들조경(주)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온천천로 206, 519호 (구서동, 벽산메가트리움) 이지영 T : 051-514-8692 보유업종 : 조경식재·시설물공사
 유원이앤씨(주) 부산광역시 사하구 승학로 45-1, 3층(당리동, 유원빌딩) 김도형 T : 051-294-9171 보유업종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	 (주)이음건설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82-6, 107호 (아우라시티) 김순옥 T : 051-724-0246 보유업종 : 실내건축공사	 (주)정관건설 부산광역시 동래구 아시아드대로171번길 8, 3층 (사직동, 태건 아시아드 2차) 허열 T : 051-863-2246 보유업종 : 구조물해체·비계공사
 (주)창신기계산업 부산광역시 강서구 화전산단 4로30번길 25-16(화전동) 박삼영 T : 051-941-1290 보유업종 : 구조물해체·비계공사	 (주)천고건설 부산광역시 남구 자성로 152, 15층 1502호 (문현동, 한일오피스텔) 옥혜영 T : 051-632-6667 보유업종 : 실내건축공사	 한결디자인 부산광역시 동구 조방로 17 4층 402호(범일동) 박태옥 T : 051-633-2260 보유업종 : 실내건축공사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KOSCA 중앙회 업무단신

- ▷ 중앙회(회장 윤학수)는 9월 16일 건설현장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인력수급 및 우수 외국인 전문건설인력 양성을 위해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과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업계의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와 학계의 외국인력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양 기관은 국내 정주를 희망하는 외국인 대상 건설분야 산업학사 과정 운영 및 취업 연계를 지원함으로써 현장 전문인력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 ▷ 중앙회(회장 윤학수)는 지난 9월 9일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협회 창립 40주년 기념 KBS 열린음악회를 사전 녹화했다. 열린음악회는 전건협 창립 이래 처음 있는 행사로 그 의미가 더욱 깊다.
이날 시·도회장, 업종별협의회장, 제위원회 위원장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 한국건설산업품질연구원 등 유관기관장,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건설교통기술협회, 한국시설안전협회 등 건설 관련 단체장 및 회원 1000여명이 참석해 KBS홀을 가득 메웠다.
행사는 박소현 KBS아나운서 진행으로 뮤지컬 배우 손준호·김소현, 임백천, 소찬휘, 김종찬, 모모랜드, 노라조, 인순이 등 초대 가수의 무대가 펼쳐졌다.
이날 녹화된 방송은 오는 10월 5일 오후 5시 40분 KBS 1TV를 통해 방영될 예정이다.
- ▷ 중앙회(회장 윤학수)는 9월 2일 데씨 달키 두카모(Dessie Dakie Dukamo) 주한 에티오피아 대사와 함께 국내 전문건설과 에티오피아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학수 회장을 비롯해 이성수 수석부회장 겸 경기도회장, 김형겸 부산시회장, 황우연 지반조성·포장공사협회 의회장과 데씨 달키 두카모 주한 에티오피아 대사, 김상진 명예 영사, 차원호 상무기획관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전문건설업의 에티오피아 진출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전문건설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본격적인 해외 시장 확대 기회를 찾기 위한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업무단신

- ▷ K-FINCO 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이은재)이 법무법인 율촌과 '건설산업의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K-FINCO와 율촌은 조합원 맞춤형 교육과정을 공동 개발·운영하고, 수료 후 법률 자문과 사후 점검까지 이어지는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이다. 교육 프로그램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경영책임자의 의무, 법 위반 사례 등 법률 이해를 높이는 강의부터 건설업 유형별 재해 예방 조치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등 실무 중심의 교육, K-FINCO 기술교육원 안전체험장을 활용한 실습형 모의훈련까지 폭넓게 구성될 예정이다.

부산시회 2025년 4/4분기 주요일정 안내

일 자	주요일정	비 고
2025. 10. 15.(수)	제1회 전문건설인의 날 행사(중앙회 주관)	
2025. 10. 29(수)	2025년 사랑의 연탄배달 봉사활동	
2025. 12. 8(월)	협회 창립40주년 기념 부산광역시 박형준 시장 초청 조찬 경영포럼	
2025. 12월 중	2025년 건설(전문)공사 실적신고 강습회	

※ 상기 일정은 협회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고위험 작업별 사전안전성 검토

01 안전체험교육장 건립 중 「외부 비계 조립」

1. 공사개요

공 사 명	00안전체험교육장 건립사업
공사위치	00안전체험교육장 부지
주요 작업내용	외부 비계 조립
주요 작업설비	시스템비계

2. 유해·위험요인 개선 및 안전점검 포인트

시스템비계 조립



일부구간 외부 시스템비계
벽이음 설치 지연



전용 벽연결 철물을 사용하여
시스템비계 고정

안전점검 포인트

- 시스템비계의 수직재·수평재·가새재를 견고하게 연결하여야 함
- 벽 연결 철물의 설치간격은 제조사가 정한 기준 또는 구조설계 기준에 따라 설치
- 비계 기둥의 밑동에는 밀반침 철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밀반침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조절형 밀반침 철물을 사용하여 시스템 비계가 항상 수평 및 수직을 유지하도록 함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02 안전체험교육장 건립 중 「마감공사」

1. 공사개요

공 사 명	00안전체험교육장 건립사업
공사위치	00안전체험교육장 부지
주요 작업내용	내·외부 마감공사
주요 작업설비	고소작업대

2. 유해·위험요인 개선 및 안전점검 포인트

부대토목



굴착기 회전, 후진 시 주변
근로자 충돌·끼임 위험



굴착기 사용 시 유도원을
배치하여 작업반경 주변 출입통제

안전점검 포인트

- 작업반경 내 신호·유도자 배치하여 근로자 출입통제
- 특히, 신호·유도자도 충돌 위험이 높으므로 이격 거리를 둔 상태에서 신호 및 유도
- 버킷 이탈 방지 안전핀 설치
- 운전원 이탈 시 버킷을 지면에 내리고 브레이크 제동 철저

2025년 건설업 교육 일정안내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설교육센터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최고의 건설업 윤리 및 실무종합 교육기관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에 근거하여 건설업을 신규로 등록한 재(건설사업자가 추가로 다른 업종을 등록한 경우 제외) 및 영업정지기간 중인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건설업 윤리 및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건설업 신규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 미이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에 교육이수가 의무적이며, 영업정지기간 중인 건설업체의 경우는 동 교육 이수 시 영업정지기간이 최대 15일 감경될 수 있기에 교육이수가 권장된다.

2025년도 건설업 교육 일정 안내

01 교육대상

- **의무교육대상 : 신규건설 등록업체**
 - 6개월 이내 등기임원(대표자 포함) 중 1인 교육 이수
 - **벌칙 : 6개월 이내 미이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 및 제99조
- **임의교육대상 : 영업정지 처분업체**
 - 영업정지 기간 내 교육 이수
 - **감경기준 : 대표자 15일, 등기임원 1인당 5일 감경**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6

02 교육내용 및 비용

- **내용** : 건설산업관련법령(건설법·하도급법·계약법), 건설품질·환경·안전관리, 윤리경영
- **시간** : 8시간 (09:00~18:00)
- **교육비용** : 집합교육 150,000원 / 이러닝교육 135,000원

03 교육신청 및 결제방법

-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신청 및 교육비 결제 (신용카드, 계좌이체)**
 - 건설교육센터 <http://edu.kosca.or.kr> (팩스 02-3284-1066)
 - 입금계좌 : 기업은행 525-001144-04053 (예금주 (사)대한전문건설협회)
- **문의** : 건설교육센터 ☎ 02-3284-1076, 1080

04 2025년 교육 일정(10~12월)

교육차수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교육장소
	교육일정	지역	마감	부터	까지	
제39기	10월 01일	서울	9. 23	9. 25	10. 1	○ 전문건설회관(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 5길 15)
제40기	10월 17일	전주				○ 전주상공회의소(전북 전주시 완산구 흥산로 176)
제41기	10월 24일	창원	10. 16	10. 18	10. 24	○ 대한적십자사경남지사(경남 창원시 의창구 웅지로 226)
제42기	10월 31일	천안				○ 천안축구센터(충남 천안시 서북구 축구센터로 150)
제43기	11월 07일	서울	10. 30	11. 1	11. 7	○ 전문건설회관(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 5길 15)
제44기	11월 14일	인천	11. 6	11. 8	11. 14	○ 인천교통연수원(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990)
제45기	11월 21일	대구	11. 13	11. 15	11. 21	○ 대구무역회관(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89)
제46기	11월 28일	수원				○ 수원상공회의소(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311)
제47기	12월 05일	광주				○ 광주상공회의소(광주광역시 서구 대남대로 465)
제48기	12월 12일	서울	12. 4	12. 6	12. 12	○ 전문건설회관(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 5길 15)
제49기	12월 19일	울산	12. 11	12. 13	12. 19	○ 울산상공회의소(울산광역시 남구 돌질로 97)
제50기	12월 26일	대전	12. 18	12. 20	12. 26	○ KT대전인재개발원(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로 160)

송정역 폐역 철길, 멈춘 선로 위의 시간

부산 해운대 끝자락, 송정역 폐역 철길은 더 이상 열차가 오가지 않는 곳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곳은 멈춘 철길 위에서 '시간이 흘러간다는 것'을 가장 느낄 수 있는 장소다. 한때 기적소리가 메아리치던 선로 위에는 이제 산책객의 발자국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대신한다. 바다 냄새가 묻어나는 공기 속에서 철길을 따라 걷다 보면, 도시의 빠른 리듬이 잠시 멈추고 마음이 조용히 과거로 향한다. 송정역은 동해남부선의 작은 간이역으로, 1930년대부터 수많은 사람들의 이별과 만남을 지켜왔다. 그러나 도시 개발과 함께 철로는 폐선되었고, 역은 사람들의 기억 속으로 서서히 사라졌다. 하지만 이곳을 찾은 시민들과 여행자들은 낡은 레일과 퇴색한 간판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했다. '멈춘 공간'이 오히려 일상의 쉼표가 된 것이다.

철길 옆으로는 들꽃이 바람에 흔들리고, 레일 위에는 젊은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걷는다. 길 끝에는 송정 해변이 펼쳐져 있고,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철길의 침묵을 감싼다. 사진가들은 이곳의 녹슨 레일과 붉은 석양빛을 렌즈에 담으며, 시간의 결이 만든 아름다움을 기록한다. 오래된 선로 위를 걷다 보면, 과거와 현재가 나란히 달리고 있음을 느낀다.

송정역 폐역 철길은 화려한 관광지가 아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 담긴 이야기는 부산의 또 다른 얼굴을 보여준다. 빠르게 변하는 도시 속에서, 이곳은 여전히 '멈춤'의 미학을 지켜내고 있다. 그리고 그 길을 걷는 우리는 문득 깨닫는다. 때로는 앞으로 달려가기보다, 멈춰 선 자리에 서서 시간을 느끼는 일이 더 소중한 수 있는 것을.



송정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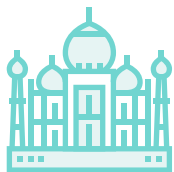


타지마할, 사랑이 남긴 대리석의 시



인도 북부의 도시 아그라, 야무나 강가에 우뚝 선 타지마할(Taj Mahal)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묘이자, 사랑의 상징으로 불린다. 17세기 무굴 제국의 황제 샤 자한이 세상을 떠난 왕비 뭉타즈 마할을 위해 세운 이 건축물은 약 22년의 세월과 2만여 명의 장인이 만들어낸 걸작이다. 순백의 대리석으로 지어진 본전과, 그 주위를 감싸는 정원과 분수대, 대칭으로 배치된 미나렛(첨탑)은 그야말로 ‘완벽한 조화미’의 결정체다. 타지마할의 매력은 시간에 따라 변하는 색감에 있다. 새벽에는 은은한 푸른빛, 정오에는 눈부신 흰빛, 그리고 석양에는 황금빛으로 물든다. 달빛 아래서 바라본 타지마할은 또 다른 세상의 궁전처럼 신비롭다. 햇빛과 그림자에 따라 표정을 달리하는 이 건축물은, 보는 이의 감정에 따라 전혀 다른 인상을 남긴다.

타지마할의 입구를 지나 정원을 향해 걷다 보면, 중심 축 끝에 대리석 궁전이 천천히 시야에 들어온다. 가까이 다가설수록 섬세한 문양과 보석 장식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대리석 벽면에는 아라비아어로 꾸란의 구절이 새겨져 있고, 그 곡선 하나하나가 예술의 언어로 느껴진다. 건물 내부에는 샤 자한과 뭉타즈의 상징적인 관이 나란히 놓여 있다. 실제 유해는 지하에 안치되어 있지만, 그 위의 빈 묘는 영원한 사랑의 상징으로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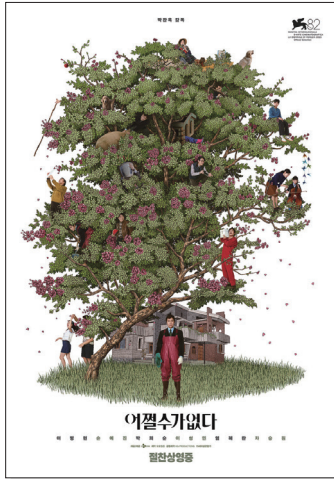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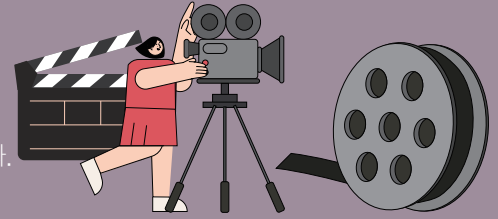


타지마할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다. 사랑과 상실, 그리고 영원을 향한 인간의 열망이 건축으로 승화된 공간이다. 수백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전 세계에서 수많은 이들이 이곳을 찾아 그 마음을 느낀다. 화려함보다 절제된 아름다움, 대리석이 품은 슬픔의 빛 — 그것이 바로 타지마할이 ‘세계의 아름다운 건축물’로 불리는 이유다.

소통하는 문화공간

Healing Movie

잔잔한 여운과 따뜻한 감동을 남기는 영화는 메말랐던 감성을 풍부하게 만들어 생각을 환기시킨다. 잊고 있던 마음의 여유를 찾아줄 흥미롭고 감동적인 영화를 소개한다.



어쩔수가없다

개봉 2025. 9. 24 감독 박찬욱

출연 이병헌, 손예진, 박희순, 이성민, 염혜란, 차승원

박찬욱 감독의 신작<어쩔수가없다>는 '가족을 지키기 위한 가장의 절박한 선택'을 그린 사회 심리 드라마다 25년간 제지 공장에서 일해온 **만수(이병헌)**는 "어쩔 수 없다"는 한마디와 함께 해고된다. 가족과의 평범한 일상은 무너지고, 재취업을 향한 그의 몸부림은 점점 치열해진다. 그러나 세상은 냉정하다. 이력서는 돌아오지 않고, 생계의 끈은 점점 조여 온다.

박찬욱은 이번 작품에서 화려한 복수 대신 현실의 잔혹함을 담담히 그린다. 공장의 차가운 조명, 무표정한 인사 담당자, 공허한 면접장의 풍경이 현대인의 불안을 투영한다. 절망 속에서도 만수는 결심한다. "나를 위한 자리가 없다면, 내가 만든다."

<어쩔수가없다>는 현실에 굴하지 않으려는 한 남자의 존엄을 응시한다. 냉혹한 사회 속에서도 스스로의 가치를 지켜내려는 인간의 의지, 그 마지막 불씨를 박찬욱의 시선은 묵직하게 포착한다. 어쩔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인간다움'임을 보여주는 영화다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

개봉 2025. 10. 1 감독 폴 토마스 앤더슨

출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손펜, 베니시오 델토로, 레지나 홀

자유를 위해 싸웠던 혁명가 밥 퍼거슨(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그는 세상을 바꾸었지만, 세월의 상처는 그를 무너뜨렸다. 16년이 흐른 지금, 남은 건 후유증과 미움, 그리고 유일한 희망인 딸 윌라(체이스 인피니티) 뿐이다. 그러던 어느 날, 과거의 숙적 스티븐 J. 록조(손 펜)가 딸을 납치하면서 밥의 세계는 다시 불길 속으로 뛰어든다. 한때 혁명가였던 그는 이제 잿더미 속에서 다시 싸워야 한다.

총 대신, 상처 입은 몸과 죄책감을 무기로. 그는 옛 동료들을 찾아 나서지만, 세월은 그들 사이마져 멀어지게 했다. 그러나 "이번엔 끝내야 한다"는 절박한 신념이 그를 다시 일으킨다.

<One Battle After Another>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다.

한 남자가 자유와 가족, 그리고 스스로의 존엄을 되찾기 위해 싸우는 이야기다.

디카프리오의 깊은 눈빛과 손 펜의 냉혹한 카리스마가 맞부딪히며, 세대와 이상, 그리고 시간의 벽을 넘어선 인간의 마지막 투쟁을 그려낸다. "싸움은 끝나지 않는다. 단지, 이유가 달라질 뿐이다." 이 한마디가 영화의 모든 것을 말해준다.

소통하는 문화공간

Healing Book

하루하루를 첫바퀴처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잠시나마 쉬어갈 수 있는 영혼의 안식처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틈틈이 읽을 만한 분야별 힐링 북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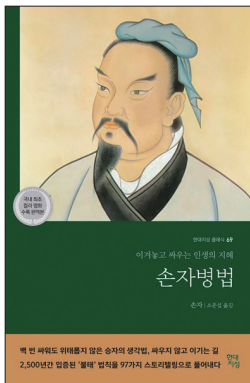
트렌드 코리아 2026

김난도, 전미영, 최지혜 저 외 7명 / 출판사 : 미래의창 | 발매일 : 2025년 9월 24일

세상은 끊임없는 작용과 반작용, 치열한 **정반합(正反合)**의 소용돌이 속을 달리고 있다.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 방향을 잡기조차 어렵다. 그렇다면 우리의 방향타는 어디에 있는가? 거센 풍랑과 예기치 못한 태풍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닻을 내려야 할까?

관세 전쟁, AI 특이점, 끝을 알 수 없는 글로벌 갈등 속에서도 한국 경제는 여전히 순항 중이다. 자동차, 조선, 반도체에 이어 K뷰티와 K콘텐츠가 세계 시장을 사로잡으며, 한국적 힘과 창의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개인들의 역동적 라이프스타일과 새로운 소비 행태는 전에 없던 흥미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내고 있다.

배가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듯, 안정은 중요하지만 배의 본질은 항해에 있다. 『트렌드 코리아 2026』과 함께 다가올 변화의 바다로 항해하며, 2026년의 소비와 시장을 선명하게 읽어보자.



손자 병법

손자 저 / 출판사 : 현대지성 | 발행일 : 2025년 10월 14일

“싸우면서 이기려 하지 말고, 이겨놓고 싸워라.”

2,500년을 견뎌온 불태(不殆)의 법칙은 단순한 전쟁 기술이 아니다. 인간관계, 비즈니스, 투자까지 삶 전반에 적용 가능한 전략이다.

『손자병법』이 시대를 넘어 고전으로 남은 이유는 명확하다. 싸워서 이길 수도, 질 수도 있지만 위태롭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는 법을 전하기 때문이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지혜, 수천 년의 검증된 고전 전략이 바로 여기에 있다.

현대지성 클래식 판본은 이 고전의 깊이를 해치지 않으면서, 독자가 직접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재해석했다. 97가지 역사적 사례와 47컷의 이미지를 통해, 항우의 몰락에서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유방의 성공에서 인재 활용을, 제갈량의 지혜에서 상황 판단을, 링컨의 리더십에서 조직 운영을 배울 수 있다.

이번 판본은 원문 대조와 상세 해설, 현대적 적용을 곁들여 독자가 손자의 사상을 실천 지침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노자의 사상, 삼십육계 해설, 병법을 활용한 비즈니스 전략까지 부록으로 담아, 『손자병법』은 단순한 전쟁서가 아닌 흔들리지 않는 삶의 기반을 만드는 전략 교과서가 되었다.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손정의가 이 책을 삶과 경영의 지혜로 삼은 이유 역시 여기에 있다. 오늘 이 책을 집어든다면, 당신도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을 손에 넣게 될 것이다.



체험 마케팅, 디지털과 현실의 공존

체험 마케팅은 이제 현장 체험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디지털 기술과 결합하며 현실과 가상, URL과 IRL(In Real Life)이 함께하는 새로운 경험으로 진화하고 있다

체험 마케팅은 이제 단순히 오프라인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경험하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디지털 기술과 결합하면서 현실과 가상, URL과 IRL(In Real Life)이 함께하는 새로운 경험으로 진화하고 있다. 2025년, 브랜드는 어떻게 현실과 디지털을 연결하며 소비자에게 몰입도 높은 체험을 제공하고 있을까?

먼저, 대면 체험과 디지털 요소가 공존하는 사례가 눈에 띈다. 브랜드는 오프라인 체험의 즐거움을 유지하면서도, 디지털 리워드나 NFT, 모바일 앱, 소셜 미디어를 활용해 체험의 범위와 질을 확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갤럭시 Z Flip4의 NFT 디지털 리워드는 현장에서 제품을 체험하는 동시에 온라인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며, 대면 체험과 디지털 체험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현실 체험을 그대로 디지털로 복제하는 시도도 활발하다. 팬데믹 이후 메타버스와 게임 플랫폼은 몰입형 체험을 제공하는 주요 채널이 되었고, 브랜드들은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Travis Scott의 콘서트가 '포트나이트'에서 1000만 명 이상이 참여하며 큰 성공을 거둔 것이 대표적이다. 나이키, 구찌 등 글로벌 브랜드들도 로블록스나 동물의 숲 같은 플랫폼에서 팝업스토어를 선보이며 디지털 체험을 통해 현실 체험의 느낌을 그대로 전달했다.

하지만 체험 마케팅은 단순히 복제에서 그치지 않는다. 현실과 디지털을 융합하는 시도가 주목받고 있다. 코카콜라는 포트나이트 게임 속 가상 음료 '슈가 바이트'를 실제 제품으로 재현하며, 게임에서 경험한 디지털 체험을 현실로 옮겼다. 버버리도 마인크래프트에서 신상품 런웨이를 진행하며 디지털과 현실을 자연스럽게 이어 몰입도를 높였다. 이러한 융합은 단순한 체험을 넘어, 소비자가 경험을 '기억'하고 '공유'하게 만드는 중요한 전략이 된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체험과 현실 체험은 서로를 강화하며 동행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디지털 체험이 많아질수록 현실 체험에 대한 니즈가 커지고, 반대로 현실에서의 체험은 디지털 몰입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브랜드는 이제 두 영역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과 디지털이 함께 만드는 경험을 디자인하는 것이 필수다.

결국 2025년 체험 마케팅의 핵심은 '현실 + 디지털 + 몰입 경험'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다. 소비자가 직접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현실 체험과, 언제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체험을 적절히 결합할 때, 브랜드는 단순한 제품을 넘어 기억에 남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현실과 디지털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새로운 체험 마케팅 시대가 이제 열린 것이다.



관세 전쟁의 그림자 : 글로벌 경제를 뒤흔드는 보이지 않는 힘

2025년, 세계 무역 질서는 다시 요동치고 있다. 관세가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국가 전략과 산업 경쟁력을 가르는 핵심 수단으로 떠오르면서, 글로벌 경제와 정치 지형까지 흔들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긴장은 이제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국가 안보와 외교 전략과 직결되고 있다.

1. 관세의 전략적 활용 : 경제적 수단에서 정치적 도구로

미국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에 대응하여 10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며, 이는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국가 간의 전략적 대립을 의미한다. 중국은 이에 맞서 자국의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며, 자원의 공급을 정치적 협상의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관세가 단순한 무역 장벽이 아닌, 국제 정치의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산업별 영향 분석 : 자동차 산업의 혼란과 공급망 재편성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로 인해 자동차 산업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부품 수급의 어려움과 생산 비용 상승으로 인해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전체 산업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은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성을 촉진하며, 기업들은 새로운 공급처를 모색하고 있다.

3.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성장률 둔화와 인플레이션 압력

2025년 미국의 성장률은 기존 예상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이며, 이는 관세 부과로 인한 생산성 저하와 소비 위축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다. 또한, 수입품 가격 상승은 소비자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압박은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경제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4.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성 : 'China+1' 전략의 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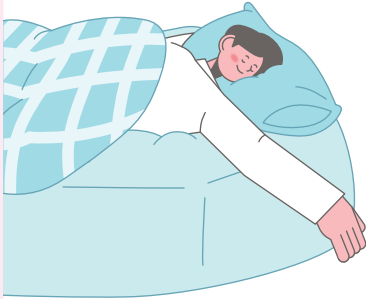
미국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China+1' 전략을 채택하여 중국 외의 국가로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있다.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이러한 흐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새로운 제조 허브로 부상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의 구조적 변화를 의미하며, 각국의 산업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5. 국제 무역 질서의 변화: 다자간 협정의 중요성 대두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는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다자간 무역 체제의 신뢰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들은 지역 무역 협정이나 양자간 협정을 통해 새로운 무역 질서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국제 무역의 패러다임을 재편성하고 있으며, 각국의 외교 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관세를 넘어선 글로벌 전략의 재편성

2025년의 관세 전쟁은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국가 간의 전략적 대립과 글로벌 경제 질서의 재편성을 의미한다. 각국은 관세를 경제적 수단으로만이 아니라, 정치적, 외교적 도구로 활용하며, 이는 국제 관계의 복잡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과 정부는 새로운 전략적 접근을 통해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에 대응해야 할 시점에 있다.



잠이 보약! 슬기로운 수면 습관 !



찬바람이 부는 겨울, 우리는 따뜻한 이불 속에서 잠깐의 안락함을 찾곤 한다. 하지만 단순히 잠을 잔다고 해서 충분한 휴식이 되는 것은 아니다. 수면의 질이 낮으면 면역력, 집중력, 기분, 심지어 체온 조절까지 영향을 받는다. 슬기로운 수면 습관은 단순히 잠자는 시간보다 잠드는 방식과 환경에서 시작된다.

규칙적인 수면 루틴

하루 24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몸은 자연스럽게 생체 리듬에 맞춰 움직인다. 같은 시간에 잠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은 수면의 질을 높이는 첫걸음이다. 스마트폰 알람 대신 자연광이나 조용한 음악으로 몸을 깨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Tip 자기전 책읽기,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마무리 하기

따뜻함과 편안함 유지

찬바람이 부는 겨울에는 체온 유지가 중요하다. 따뜻한 이불과 수면용 양말, 가벼운 온열팩 등으로 몸을 따뜻하게 하면 잠들기 쉬워지고 깊은 수면을 돕는다. 너무 뜨거운 난방보다는 적정 온도를 유지하며, 수분 부족을 막기 위해 잠들기 전 따뜻한 차 한 잔도 추천된다.

숙면을 돕는 환경 만들기

방 안의 조명, 소음, 공기 질은 수면에 큰 영향을 준다. 스마트폰을 잠시 멀리 두고, 침실을 어둡고 조용하게 만드는 것이 좋다. 건조한 겨울철에는 가습기를 틀어 적정 습도를 유지하면 목과 코가 편안해지고, 숙면으로 이어진다.

Tip 수면유도 음악이나 백색소음 틀어 뇌가 긴장을 풀고 휴식모드로 전환 유도하기

음식과 수면의 관계

무심코 먹는 간식이 수면을 방해할 수 있다. 카페인과 알코올은 취침 전 몇 시간 동안 피하고, 따뜻한 우유나 허브 티, 생강차 같은 음료는 몸을 안정시키고 잠들기 쉽게 만든다. 또한 가벼운 저녁 식사는 소화 부담을 줄여 편안한 수면을 돕는다.



잠들기 전 스트레칭으로 몸과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

하루를 마무리할 때, 우리는 종종 피로에 지쳐 소파나 침대에 몸을 맡기고 휴식을 취한다. 하지만 몸을 그대로 두는 습관은 생각보다 우리 건강에 부담이 될 수 있다. 하루 종일 긴장된 근육과 굳어진 관절은 잠들기 전 충분히 풀어주지 않으면 숙면을 방해하고, 다음 날 아침까지 피로감을 남기기 때문이다.

특히 겨울철 찬바람이 부는 날에는 몸이 쉽게 굳고 근육이 긴장하기 쉽다. 이런 상태에서 잠자리에 들면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아 깊은 수면을 방해하고, 심하면 혈액순환 문제나 근육 뭉침, 경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단 5분의 스트레칭만으로도 이러한 문제를 크게 완화할 수 있다. 짧지만 집중적인 스트레칭은 근육과 관절의 긴장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심신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스트레칭을 통해 몸이 편안해지면, 뇌와 신경계도 자연스럽게 휴식 모드로 전환된다. 이는 단순히 근육이 풀리는 효과를 넘어서, 잠드는 시간을 앞당기고 깊은 수면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스트레칭은 몸과 마음의 연결을 느끼게 해주는 일종의 '마지막 자기 관리 시간'으로, 하루 동안 쌓였던 스트레스와 긴장을 내려놓는 의식적인 행동이 될 수 있다.



목 어깨 이완 (1분)

어깨를 천천히 원을 그리듯 돌리거나, 목을 좌우로 부드럽게 움직여 긴장을 풀어준다.



허리와 등 스트레칭 (2분)

1.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긴다.
2. 벽이나 침대헤드부분에 두 다리를 기대어 편안하게 호흡한다



다리와 발목 스트레칭 (2분)

발목을 천천히 돌려 혈액순환과 다리 긴장을 풀어준다.
그리고 다리를 쭉 편 상태에서 허리를 굽히고 발을 잡는다. 그 뒤 상체를 최대한으로 내려 편안하게 호흡한다.

잠들기 전 5분의 마법

짧은 시간일지라도, 잠들기 전 몸과 마음을 위한 이 작은 습관은 하루의 긴장을 정리하고, 숙면과 다음 날 활력을 위한 준비가 된다. 찬바람 부는 겨울, 오늘 하루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잠들기 전 단 5분만 투자해, 몸과 마음에 휴식과 회복을 선물해 보자.



“가을의 달콤한 선물, 보니밤” 밤조림



가을이 깊어질수록 길가엔 밤송이가 터지고, 달콤한 밤 향기가 퍼진다. ‘보니밤’은 가을의 정취를 가장 잘 담은 음식 중 하나로, 풍요로움과 따뜻함을 상징한다. 어릴 적 군밤을 손에 쥐고 호호 불며 먹던 기억처럼, 밤은 세대와 계절을 이어주는 특별한 음식이다. 하지만 이 작은 알맹이 속에는 생각보다 놀라운 건강 효능이 숨어 있다.

밤은 비타민C, 칼륨, 식이섬유가 풍부해 피로 회복과 면역력 강화에 좋다. 특히 비타민C가 풍부해 ‘구운 밤은 영양이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구워도 일정량의 비타민C가 유지되어, 가을철 감기 예방과 피로 누적 방지에 효과적이다. 또한 천연 당분이 풍부해 단맛은 있으나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아 간식으로도 부담이 없다.

한편, 밤은 속을 따뜻하게 해주는 식재료로도 유명하다. 한방에서는 밤을 ‘위장을 편안하게 하고 기운을 북돋는 식품’으로 여긴다. 찬바람이 부는

계절, 따뜻하게 구운 밤 한 알은 그 자체로 몸의 온기를 높이고 소화를 돕는 자연식 보약이다.

● 밤은 조리법도 다양하다.

- 구운 밤은 고소하고 달콤하게, 간단한 간식으로 좋고
- 삶은 밤은 부드럽게 익혀 노약자나 아이에게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다.
- 밤죽, 밤밥, 밤조림 등으로 응용하면 제철 건강식으로 손색이 없다.

가을의 끝자락, 따뜻한 군밤 한 줌은 그 어떤 디저트보다 풍요롭다. 달콤하지만 자극적이지 않은 자연의 단맛, 손끝에 느껴지는 온기, 그리고 입안 가득 퍼지는 고소함. 보니밤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느긋하게 가을을 즐기는 마음의 여유다.

코스카레터를 읽고...

1. 우리들조경(주) 대표 이지영

- 코스카레터는 현장에서 일하는 실무자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전달해 주는 든든한 조력자입니다.
- 법령이나 제도 개정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셔서 업무 효율이 높아지고, 실수 없이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 특히 분기마다 달라지는 행정 절차나 신고 기한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현장과 사무실을 오가며 일하는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 앞으로도 실무 중심의 알찬 정보와 회원사에 꼭 필요한 현장 사례를 많이 다뤄주시면 좋겠습니다.

2. (주)피디엠평트너스 부장 정승훈

- 실무를 하다보면 법령 개정이나 주요 이슈들을 잘 챙겨보지 못할 때도 있는데 코스카레터를 보면서 한 번 더 숙지하게 되어 유익합니다.
- 특히, 유권해석 부분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를 볼 수 있길 기대합니다.

코스카레터 잘 읽으셨나요?

**Quiz를 풀고
정답을 맞춰주세요~**

코스카레터 잘 읽으셨나요? Quiz를 풀고 정답을 맞춰주세요 ~



우리사회에서는 협회 창립40주년을 기념하여 해운대수목원 내 4,450㎡ 부지에 상징적인 휴식공간이 될 정원을 조성했습니다. 국내 유일의 삼색꽃을 피우는 150년된 배롱나무와 200년된 희귀한 소나무 등 특수목과 함께 안개분수, 산책로 등으로 조성된 이 정원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지난호 독자퀴즈 정답

89.745%

지난호 독자퀴즈 정답자 발표

1. 거북토건(주) 과장 이선영
2. 케이에스티이엔씨(주) 이사 배진희

정답을 아시는 분은 협회 홈페이지(www.kosca21.or.kr)를 통해 응모(기간 : 2025. 11.30(일)까지)하시면
추첨하여(정답자에 한함) 스타벅스 기프트카드를 드립니다.



불필요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건설사업자는 필수적으로 기한내에 교육받고 신고하여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를 인지하지 못해 큰 부담이 되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의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한전문건설협회 홈페이지(www.kosca.or.kr) 및 소통앱인 '코스카톡' 등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각종 법령정보와 공지내용 등을 파악하여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NO.1

건설업 신규등록 교육 이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

건설업 신규 등록자 교육 8시간 이상 이수(건설업 등록 후 6개월 이내)

▲ 미이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관련 문의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교육센터(edu.kosca.or.kr), 02-3284-1076

NO.2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 및 시행령 제26조]

공사대장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 통보(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 원도급 1억 이상(하도급 4천만원 이상) 도급계약 시

▲ 미 통보시 시정명령(시정명령 미이행시 과태료) 또는 해당공사 완료일까지
미 통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관련 문의 키스콘(cws.kiscon.net) 1588-8456, 대한전문건설협회 02-3284-1010

NO.3

건설업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 제2항 및 시행령 제12조의3]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기재 사항(상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법인(주민)등록번호 등) 변경 시 해당 등록관청에 변경 신청(기재사항 변경 후 30일 이내)

▲ 미신고시 50만원 이하 과태료

※ 관련 문의 본점 소재지 등록관청, 대한전문건설협회 02-3284-1010



전문건설인
대한민국을 세우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30번길 30, 4층(범천동, 전문건설회관)
Tel. 051-633-0260 Fax. 051-633-0261
www.Kosca21.or.kr